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9월 14일 (월) 제720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윤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대학당국, 구조조정안 확정

지원삭감, 학부제… 구성원들 반발 예상돼

대학당국은 지난 8일(화) 우리학교 구조조정 방안의 기본틀을 발표하고 이를 각 구성원 대표에게 전달, 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겠다고 발표한 5월경에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약 석달 반만에 발표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구조조정 연구위원장인 기획조정처장 이종욱(경영학과)교수는 "박승준 전 이사가 학교를 10여년동안 운영하면서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지 못했다. 이것은 비리문제와는 별개의 경영상의 문제다"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학당국은 이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큰 틀만 잡아놓은 것이고 구성원의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크게 △행정조직 개편 △경영관리 혁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직 개편에서는 학교 규모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세분화된 행정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큰 줄기다.

또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조정처(기조처)와 연구관련 업무와 국제학술교류업무, 대외모금활동 등을 주로하는 연구협력처(연협처) 조직은 확대 개편됐다.

기획조정처는 산하에 감사평가팀을 신설하는 한편 재무처 예산과를 흡수, 기획예산팀을 새로 구성했다. 연구협력처 또한 현재의 연구협력과를 연구지원팀과 대외협력팀으로 나누었다. 또 학생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학생중심의 원 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 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했다.

그 외 시청각교육원, 외대신문사, 학생처 등은 타부서와 통폐합된다. 이상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 교수보직은 8개, 직원 보직은 10개가 줄어들게 된다.

경영관리혁신 방안은 크게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재정분야 효율성 제고 △정보화 추진 △관리운영비 절감 △전략 사업추진 등이다. 이 중 교직원 연봉제를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제나 학생경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삭감 등은 구성원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며 정보화 여건 마련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대학당국은 또 많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제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정 기자

고용, 실업대책 마련하라 실업대책, 고용안정, 재벌해체, IMF 재협상을 요구하는 실업자 대행진이 지난 12일(토) 종묘공원에서 진행했다. 최초의 실업자 집회인 이 행사에는 국제민중회의에 참가중인 각국 언론인, 지식인, 사회운동단체 인사들이 지지발언을 하기도 해 관심을 모았으며, 문화상징의식으로 넥타이부대와 작업장갑부대가 각각 넥타이와 장갑을 가위로 자름으로써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수립의 요구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승희 기자

서울, 세계영화제 개최

대중성·예술성 갖춘 다양한 영화 선보여

서울배움터에서는 '세상을 향해 열린 눈 제2회 세계영화제'가 개최된다. 오늘(14일)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동·서양어대 주최로 대강당, 소극장, 노천극장 등 3곳에서 진행한다. '살(殺)권리? 살(生)권리!'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살인'이다. 여기에서의 '살인'은 전쟁, 범죄 등의 물리적 살인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모순에 의해 일어나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억압도 포함한다.

평소 접하기 힘든 쿠바 애니메이션 '필미누또(Filminuto)'를 비롯 '자유, 이것이 천국이다'(러시아/세르게이 보드로프/1989)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폴란드/크쥐시토프 키에슬롭스키/1988) '아비야의 여름'(이스라엘/엘리 코겐/1988) 등이 상영된다. 매일 3-4편의 주요상영작 외에 심야영화, 안성기회고전 등 영화제 기간 동안 총34편이 소개된다. 오늘(14일)은 개막작품 '야생동물 보호구역'(한국/김기덕/1997)을 대강당에서 상영하며, 6시 노천극장에서는 인도어과 전통춤패와 서반아어 원어노래패 'Los novious'의 공연과 초대가수 '여행스케치'의 노래가 어우러지는 개막식이 열린다.

한편, 2회 세계영화제는 첫째,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영화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주제의식을 갖춘 영화상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남현주 기자

지면안내

구조조정안 발표 ······································ 3면

인센티브제, 지원삭감 등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다 학부제까지? 그래 어디두고 보자구~!

서울국제민중회의 – IMF에 도전하는 민중 ········· 5면

IMF와 자본의 세계화에 고통받으며 대항하고 있는 전세계 민중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기세등등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선전포고.

세계민속공연 보도 ······································ 7면

세민전 둘째주 행사. 세계민속공연 4천명의 참여 등 성황리 개최… 7천의 '도전', 7천만의 '화해'를 열망.

빈의자 — 정의는 승리하는 법

▲'개구리 왕눈이'라는 초등학교 시절 즐겨보는 만화가 있다. 이 만화에서는 주인공 왕눈이와 왕눈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한 자리'하며 서민 개구리들의 혈세를 받아먹는 '투투' 그리고 '투투'를 배후 조종하며 개구리 마을을 장악하려는 패권주의 세력 '가재'가 등장한다.

이 개구리 마을에서는 정권을 잡고있는 '투투'의 학정으로 인해 서민 개구리 한마리가 죽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에 대항하는 개구리의 경우 쥐도 새로 모르게 '의문사(?)'를 당하곤 한다.

▲이런 '투투'의 학정에도 '왕눈이'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이에 대항한 조그만 투쟁을 벌이며 살아간다. 바로 옆에 있는 서민 개구리들이 더 이상 핍박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왕눈이'는 '투투'를 배후조종하는 가재를 알게되고 이런 근본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인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 법'. 왕눈이는 학정을 펼치던 '투투'를 무릎꿇게하고 개구리 마을을 차지하려던 '가재'를 끝내 물리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사회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많은 열사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사회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게 명예회복은 커녕,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가 군부정권 시절에 그치지 않고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금이나마 이 사회가 민주화되기까지의 과정은 바로 이런 열사들의 정신에 있었다. 그러함에도 사회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살아갔던 열사들을 위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에서는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며 오늘(14일)부터 한 주 동안을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행사들을 진행한다.

열사에 대한 우리의 조그만 성의는 바로 '명예회복과 의문사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열사 정신 계승으로 이들에 대한 의리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지지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박윤정

각 단대 정총·대표자회의 개최

2학기 사업 인준 중심으로 논의될 듯

서대 서양어대 학생회는 오늘 22일(화) 5시 30분 사회과학관 406호에서 서양어대 학생대표자회의(서학대회)를 개최한다. 주요안건은 △1학기 사업평가 △2학기 계획 △회칙개정 및 선거시행 세칙개정 등으로 특히 1학기 평가의 일환으로 이번 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대 동양어대학생대표자회의(동학대회)는 16일(수) 5시 대학원건물 311호에서 열린다. 다른 단과 대학과 마찬가지인 회칙 개정, 1학기 사업 평가, 2학기 사업 계획 등의 안건과 함께 선거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특히 동대는 이 자리에서 한총련의 9.30동맹휴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연 오는 16일(수) 5시 30분 사회과학관 303호에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가 △하반기 사업계획서 토론 △가등록 동아리 활동 보고 △분과별 사업계획보고 등의 순서로 열린다. 동연도 동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거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사범 오늘(14일) 오후 5시 30분 시청각건물 114호에서 열리는 사범대학생회대표자회의(사학대회)에서는 산하기구에 대한 모호한 원칙을 개정하고, 교육자료실 부칙을 인준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사범대학생회가 보고할 2학기 사업계획도 열린학교 후속작업 영화제, 체육대회, 교육농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자연대 학생회는 오는 16일(수) 2학기 정기학생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학원자주화투쟁 상황 보고 △1학기 사업 평가 △2학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 진행 방식은 학생회 일꾼들이 발제하는 형식을 탈피, 학생들과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회장 길영필(물리 4)군은 "학우들에게 최대한 발언권을 주어 날카로운 평가는 물론,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류재석 기자

사령

임

사회부장
허윤숙(동양·아랍어 4)

사진부장
임승희(동양·터키 2)

대학부장
김재경(법·법학 4)

—외대학보—

가자! 외대학보사로

"이게 대학생활이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외쳐대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던건

대학생활의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 나의 이상을 펼칠만한 멋진 대학생활을 원했었는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대학생활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호흡하며 당신의 멋진 이상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

외대학보로 오십시오.

인생최대의 멋진 대학생활이 외대학보사에서 펼쳐집니다.

모집대상 : 98학번 새내기
모집기간 : 9월 23일(수)까지
모집전형 : 간단한 논술 및 면접
모집부문 : 사회부 대학부 문화부 사진부
학술부 광고부 만화부

사설

구조조정방식 전면 재고해야

정리해고에만 급급 장기적 대안 부재

하반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업 등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구조조정 '태풍의 핵'으로 불리는 대기업(재벌)과 공공부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미 대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불렸던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재벌들은 구조조정 준비에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도 9월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태풍의 핵'으로 불릴만큼 큰 위력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종소수'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왔다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그것과 비교가 안될 만큼 그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과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번째는 구조조정=정리해고라는 도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 IMF 국난의 책임의 한 축이 재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은 과도한 차입 경영과 부실 경영,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정경유착으로 인한 비자금 조성 등의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러왔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와 개발을 하기 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투기와 모방을 일삼아 왔다. 이러함에도 재벌들은 거품구조와 문어발식 기업의 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 투명성 확보등을 통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얼마전에 발표된 5대 재벌 구조조정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의 빅딜 요구를 적당히 구색만 맞추면서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여전히 재벌의 문어발 아래에 놓아두고 있다. 그러면서 재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정리해고만을 주장한다. 정리해고 법안에는 기업이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이고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해야할 경우는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벌은 문어발식 구조와 부실 경영은 손대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다 안되면 정부에 손을 빌려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만큼이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방법을 쓰고 있다.

두번째는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 경제를 외자로 망했다고 표현한다. 부분별한 외자도입으로 환란을 겪었고 결국 IMF 지배까지 받게된 것이다. 그러나 외자로 망한 경제를 다시 외자로 살리려 하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도입 알짜배기 기업을 헐값에 외국 기업에 넘기는가 하면,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후 우리 경제가 만약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라에 우리 기업은 없게 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구조조정 방식을 재고함으로서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IMF 국난의 원인의 주범인 재벌과 잘못된 경제·금융구조의 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하며 그 방식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체제 개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영화 조치 등도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

훕산의 소리

훕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글을 받습니다.

- 자격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제한 없음 ② 아래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3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이텔, 나우누리(DEDAE))

학내여론수렴의 창구역할을 다하고자 98년부터 특정주제를 가지고 외대인의 <찬반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펼쳐보십시오. 찬반주제 : 준법서약서

「지난주 외대학보를 읽고…」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용인교통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718호 '1117번 버스'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비롯, 통신공간에서 오른 관련글을 싣는다. 한편 윤주상군의 글을 직접 투고에 의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외대학보를 읽고…」

교통문제 기사에 대한 반론

개강과 동시에 용인배움터 내부에서는 "버스1117번의 노선연장운행에 따른 소요시간의 증가와 학생들의 불편에 관한 사항이 문제시되어 결국에는 외대학보에까지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결코 타당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올린다.

우선 본인은 용인 배움터행의 모든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500,1117,1113)을 밝힌다. 비판의 논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기사중 "노선 변경은 소요시간이 20-30분 늘어난다"는 글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며 과장된 것이다. 종전의 노선에서도 버스가 광주 시내를 빠져 나오는 데는 평균15분 정도가 걸렸다. 변경 후 버스가 나산아파트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에따라 증가된 소요시간은 불과 10여분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광주를 도는데 걸리는 총 소요시간이 20-30분인 것이며 학보 측은 이를 마치 연장운행으로 인한 증가시간인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피해 사례로서 J군의 예를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근거이다.

이유인 즉 "시간에 맞춰 나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버스를 탄 구간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연장운행으로 인해 늦었다"라는 억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상의 비판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1117번의 버스노선 중 두 가지 공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그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석촌호수-가락 시장 입구 간 지하차도 개통이다. 97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구간은 공사중이었다. 원래는 10차선이 넘는 도로였으나 공사로 인해 그 구간은 불과 6차선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 단지 100M의 도로를 가는 데에도 20분 정도의 시간 소요가 있었음을 전 학우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젠 터널공사는 끝났고 개통이 되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2.성남시 복정동(동서울대학,구 대구공전)-경원대 구간의 도로포장,확장 공사가 끝났다는 것이다.

역시 이로 인해 소통이 전보다 원활해 졌다. 결론적으로 강변역 기준 모란역까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것이 이젠 불과 35-40분 정도로 단축되었다.

이에 노선변경으로 인한 소요시간의 증가를 합친다 해도 총 소요시간은 80분 남짓 가량으로 예전 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외대학보측과 학생회측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단지 노선을 연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버스회사(대원고속(주))와 학교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비난의 근거 자체가 과장된 것이고 정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에 전 외대학우들에게 실상을 전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다.

또한 노선버스를 마치 학교전용버스인양 착각하고 있다. 기사 중 "버스의 주고객이 학생이란 점..."이란 것이 있었다. 1년에 정확히 반밖에 등교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은 방학과 휴일이어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노선버스는 엄연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즉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노선의 변경은 버스회사의 자의적 행위라기 보다는 우선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어차피 노선 변경도 일정기간 운행 후 회사측의 이윤증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변경 노선 운행 시작부터 큰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만 알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황지만 〈ID 황지만〉

황지만씨의 글에 대하여

황지만씨의 글을 잘 읽었다. 그러나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총학이나 학보사는 외대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학교 복지를 바라보는 일차적 차원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일단의 학보의 기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1. 노선시간 변경에 대하여

본인의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 시간이 2시간 30분이다. 집에서 강변역까지 보통 1시간, 강변역에서 왕산까지의 시간이 보통 1시간 30분. 보통 강변역에서 학교까지 지금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황지만씨가 주장하는 대로 석촌호수 지나 가락시장 전까지의 지하도로 공사와 성남대로 공사의 완결로 인하여 소요시간이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통학 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내가 학교에 입학했던 93년부터 시작한 공사가 이제는 끝나서 학교 통학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경기여객에서는 방중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했다.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임의성이다. 운수사업자가 노선을 변경하려면 관할 도청이나 시청에 변경했을 터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확인을 해 볼길이 없으니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학교를 종점으로 하고 학교를 차고지로 하는 주 서비스 대상이 외대 학생들인 버스사업자는 노선변경을 최소한 학교당국이나 총학과 논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분명 1117번은 대중버스지만 애초부터 외대학생들의 통학버스로의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온 사업자로서는 외대학우들의 의견에 일차적으로 기반을 했어야 했다. 물론 기타 모현 주민들이나 버스 이용객들을 보자면 일단의 고려의 부문이 있으나 지금의 모현 주민들이나 버스이용자들은 내가 보기에는 신노선의 광주 아파트단지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주로 서울이나 광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구노선으로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외대가 용인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지역개발(상당히 회의가 드는 부분이지만) 교통의 편리함이나, 기타 상업시설 확충들이 용인, 구체적으로 모현에 들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대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노선에서 광주를 돌아나가는 것이 지금의 신노선에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나가는 것보다 적어도 10분 이상은 차이가 난다.

광주의 열악한 교통기반을 생각하자면 광주에서의 노선단축이 노선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외대생의 요구들이 있었다면 그 문제는 다르겠으나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소리는 아쉽게도 듣지를 못했다.

오히려 분당에서의 학생들의 요구인 노선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쓸데없는 노선확대라 생각된다.

전명훈(strike93)

학교를 싫어하는 0순위

개강 첫날 느닷없이 광주시내를 한바퀴 관광하고 학교에 들어오는 버스속에서 나는 "아저씨께서 잠시 착각을 하셨겠지…" "아냐 더 빨리 등교시켜 주시려 이 길로 오셨을 거야..."며 스스로 위안했다.

결국, 학보를 본후에 사실을 깨닫게 된 것는 오래지 않아서 였지만 개강 후 첫 등교를 나와 같은 날에 했던 학생들이라면 비슷했던 관광경험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이 '광주문제'가 우리학교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것 같은 생각이다. 그 이유로 우선, 이번 노선변경으로 광주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적게는 15분, 교통 정체로 인해 많게는 30분 이상걸림으로 인해, 이용자의 대부분인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께서는 더욱 근면해 지셔야 한다. 따라서, 버스 안에서 시달려야할 시간이 1/3이상 늘었기 때문에 오전수업 시간 내내 무기력함을 드러내며 쓰러져가는 이들도 늘 것이며, 상당수가 꼿꼿히 고개를 들고 고생했어도 비능률에 시달려야할 것이다. 이는 곧 학업 성취도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둘째, 아침나절에. 노선변경으로 늘어난 정류장에서 내리는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자. 둘. 셋. 그리고 가끔 넷... 이제, 눈을 돌려 버스 안을 살펴보자. 60명이 문쪽으로 이목을 모으며 기다리고 있다. "얼렁~내리세요"라는 한마음으로. 민원 수렴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서울에서 광주시내를 통과하는 버스가 아예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현재, 이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다기에 더 이상의 불만은 푸념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쯤으로 줄인다.

그러나, 4년째 학교에 등하교하는 나는 대원여객의 버스 안에서 내 대학생활의 1/5을 보냈기에, 후배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측은함이 앞선다.

아울러, 요즘 지방대학의 폐교·파산위기를 보면서 이러한 교통문제가 학교를 싫어하는 0순위가 되어 우리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지지는 않을까하는 노파심은 더욱 앞선다.(만일 그렇게 된다면,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아니던가! 학교당국 관계자의 밥줄이 걸린 문제 아닌가!)

윤주상(동구·헝가리 4)

수강신청 3번하게 만드는 행정

때늦은 무더위로 짜증이 더해가는 날들이다.

날씨이외에도 나를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 소개하고자한다.

자유선택과목으로 상경대 계열공통과목인 박석구 교수의 회계원리A를 수강신청하였다.

수업을 들어가 보니 강의실에는 상경대 복학생과 나 둘뿐이었다.

수강신청변경기간에 강의를 신청한 나는 상경대 교학과로 가서 문의해보니 그 과목의 강의시간이 금 7,8,9 교시수업이 2,3,4교시로 일방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의시간을 변경한 전후사정이 어떻든간에 강의시간표를 보고 신청한 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과목과 중복수강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강신청변경기간동안이라도 최소한의 안내가 각단대에라도 있었어야 한다.

이 과목의 일방적인 시간변경으로 나는 금요일 2,3,4교시에 두 과목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교학과에서 16일 수요일 이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나오며, 수강신청을 3번하게 만드는 체계없는 학사행정과 외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란말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정대홍(서대·포어4)

군대가는 나는 행복한 거죠?

-007-

백지 대자보

주제: 실업 600만시대. 대학생 졸업해도 취직할 곳 없다는데…

대학원생 졸업해도 취직할 곳 없다.
-서초동 대학원생-

쿠테타를 일으켜 우리가 정권을 잡자.
-혁명가-

학교는 한 번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갈곳 없으면 등록금과 용돈, 전액지급하여 '석사' 따게 하고 직장 못구하면 '박사' 따게 해라.

그래도 취직 안되면 교수 되게 해 책임있는 학교 만들자.
-다급한 예비 졸업생-

잘 찾아봐. 그나마 있으니까. -벤취에서-

사노라면=죽노라면
-한강대교위에서-

언제는 일자리 같은 일자리 있었냐?
-착취당하는 노동자-

내가 무슨직업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슨 직업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라.
-횡설수설이-

아하~?! 대학교는 (취업)대(비)학교의 줄임말이었나 보다.
-중국어 97-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정치 수배 해제를 위한 기획광고

우리는 매년 1700여명의 범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1700여명의 대표자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정권의 손에 의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년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배자로 전락해 버린 우리 대표자들은
지금 조계사에서 정치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한달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한총련 이적규정과
이로 인한 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안 분석 평가

장사하기 좋은 대학 만들기

구성원 참여보다 교육부압력이 더 큰 영향 행사, '대학교육에 시장원리 적용' 비판

대학구조조정이 IMF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8일(화) 대학당국이 전격 발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각 구성원들은 근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대학의 구조가 효율성있게 재편돼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구성원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느냐는 문제에서는 회의가 드는 표정이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처 개편부문에서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조처 산하에 예산과를 편입시켜 효율성을 높인 점이다. 학생처 폐지 및 업무이관도 학생처업무가 학생회 개입, 장학금 관리 등 타부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자세한 사항이 발표돼야 확실해지겠지만 학생중심 행정의 하나로 학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 것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구조조정 계획이 10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수립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첫째, 구조조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정보화추진 부분은 초기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재원마련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학당국의 실행의지마저 무색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등록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과 대학당국의 책임인 구조조정 부담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셈이 된다.

둘째, 교육부 정책에 떠밀려 급하게 추진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기적으로 교육부가 구조조정 대학에 재정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에 우리학교에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된 점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조직의 개편이 각 부처에 대한 사전평가 작업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순히 조직을 통폐합하고 보직을 10여개 줄인것만으로 당초 목표인 '효율성 제고'는 이뤄질 수 없다. 장기적인 학교발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더구나 각 조직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없이 장기적인 시각의 구조조정안이 나올리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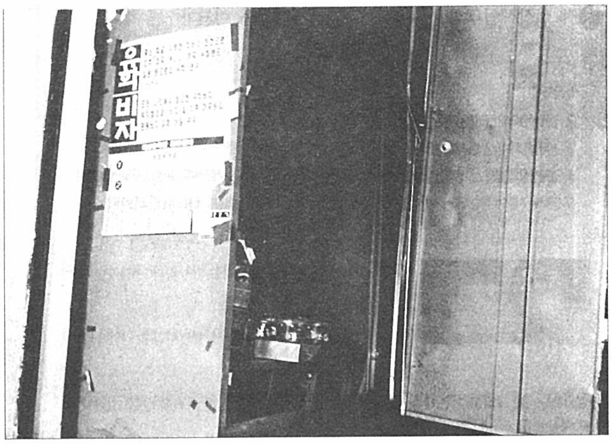
그래서 '효율성 제고' 측면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직원노동조합장 장건씨는 "방대한 학교조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형식만 모자이크 했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노조측의 주장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또, 외대의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구조조정안은 생산력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시장경제논리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기업적 마인드'가 도입됐을 때 폐해는 생각외로 심각하다. 예를 들어 교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했을 때 교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함으로써 특정 학문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 취지와는 달리 교원업적 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탓이다. 한권의 저서와 한편의 논문이 동등한 업적으로 기록되는 업적평가제에 맞춰가다 보면 연구의 깊이도 떨어지고 특히 우리학교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문과학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셋째 교육부 정책을 중심으로 고민하다보니 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다. 대학당국이 구조조정안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나름대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던 모습에 비해 전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책수립과정이 밀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각 단과대 학장, 양 배움터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에 전달된 문서로는 구조조정 내역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비판과 함께 일주일만에 어떻게 충분한 토론과 분석을 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학생자치기구 활동 약화와 학생복지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안에는 학생경비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문항이 있는데 이는 자치회비 사용에 대해 간섭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은 쉽게 '학생행사도 수익이 안되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치활동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복지도 마찬가지다. 대학당국과 재단이 2주전에 공개한 97년·98년 예결산 내역을 보면 연구학생경비 16억이 삭감된 반면, 적립금(유동자산+특정기금-유동부채)은 오히려 삭감액을 상회하는 26억이나 된다.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각종 경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26억이나 되는 적립금의 사용용도가 무엇이며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연구학생경비부터 삭감한 당국의 태도는 명확한 해명과 개선없이 쉽게 납득되기는 힘들것 같다.

박윤정 기자



이보다 더 심할 수 있나

본보가 9월 2일자 고발사진으로 실었던 자판기 사물함의 음료수 도난사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 8일(화) 새벽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3층 자판기 사물함이 심하게 뜯기고 있다며 본보에 제보한 학생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외대인이 분명하다"며 잘못된 양심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자판기 음료수 제공업체인 '깡통'측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자판기 사물함을 새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임승희 기자

첫시행 미숙 개선해야 혼란 방지

온라인 수강신청, 장점불구 행정미숙

이번 학기에 시범 실시된 상경대, 경상대, 공대의 온라인 수강신청에 몇가지 오류가 지적되면서 전체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온라인 수강 신청은 기존의 OMR카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절차는 간편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에대해 대학당국측은 "OMR카드작성시에는 작성에 오류가 생겨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경대 학생회장 현승현(경영,4)양은 "학생들의 요구와 타대학 추세를 볼 때 일단 긍정적인 것 같다"며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성에도 불구, 시행 첫학기 행정적 미숙함과 준비부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첫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대학당국의 홍보 부족이다. 대학당국에서는 8월초에 온라인 수강신청 안내에 관해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지서가 늦게 도착해 제때에 수강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통지서에서는 추가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마저 놓칠 경우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강의시간표 등에 온라인 수강신청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프로그램상의 문제이다. 교양과목의 경우 영역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제 체계에도 불구, 인문학 영역, 자연과학영역 등 각 영역이 구분돼 있지 않아 도움말이 초보자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박윤식(상경·경제 4)군은 "도움말이 자세하지 않아 방법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교무처 손천수 주임은 "온라인 수강신청 시행결정 자체가 방중에 났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우편발송 이외에 통지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프로그램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철 시스템 개발 주임은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실시된 온라인 수강신청은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학생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범실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만큼 다음 학기부터는 대학당국의 철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류재석 기자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구조조정안은 행정조직개편과 경영관리혁신에 국한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조처와 연구협력처 외에도 재무처, 취업정보센터, 교무처, 총무처, 교학과 등 거의 모든 행정부처가 개편된다. 교무처와 학생처가 통합하여 교학처로 개편되고 산하에 학생종합지원센터, 교무지원팀, 수업학적지원팀을 둔다. 기존의 학생처 업무는 학생종합지원센터로 통합조정된다. 각 단과대학 교학과는 축소되고 대신 배움터 별로 하나씩 설치될 학생종합지원센터로 행정지원업무일체가 이관되며 앞으로 학사행정은 양자간의 통합지원체제로 전환한다.

한편, △경비절감 △효율적인 지출 두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경영관리혁신방안은 시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정된 등록금수익만으로 학교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기됐다. 교직원 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갖가지 사업을 축소하는 등이 그것이다. 또 그동안 투자부족과 사업의 일관성결여 등으로 낙후돼 있던 정보화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있다. 업무연락과 회의를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한다던가 강의실을 첨단화하고 양 배움터 간 원격동시 강의 등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계획이다.

'비경직성 예산의 10%를 절감, 핵심전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격적 경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진될 전략사업으로는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우수학생의 유학을 방지하고 취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외국 자매대학과 이중학위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죽이는 구조조정 강요

일단 현재 각 대학분규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학부제문제를 포함한 학제개편, 대학원 중심대학 체제 등이 이번 구조조정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타 대학과 달리 외국어대라는 특성 때문에 섣불리 학부제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학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이 계획을 보류한 것이며 2000학번은 유사학과가 통폐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제개편안은 △기초학문말살 △교육개방의 통로역할 △불필요한 고학력현상 초래 등의 폐해로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반대하는 안이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를 비롯한 다수 학교들이 기를 쓰고(?) 학제개편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이유는 바로 지원금 때문이다.

지난 5월 1일 교육부는 '교육개혁평가 우수대학을 40개에서 20~30개로 축소하고 총 200억을 차등지원하겠다'며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구조조정노력 △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 △정보화 등을 제시한 것이다. 유사학과 통·폐합, 교수실적 평가, 구조조정 계획수립과 추진 의지 등 거의 모든 대학이 교육부 지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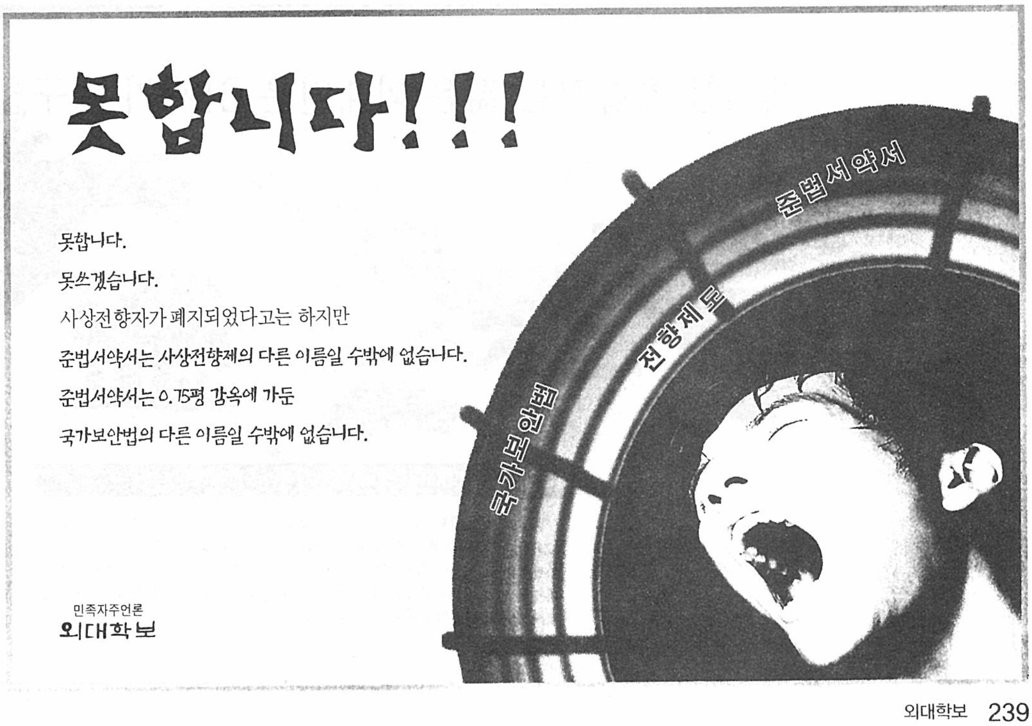
결국 교육부는 진리의 전당인 대학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라'고 각 대학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알림 **바로잡습니다**

지난호(719호) 1면에 게재된 교직원 인사발령 기사 중 '대기발령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재발령 받지 않으면 자연 해고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2개월을 3개월로 바로잡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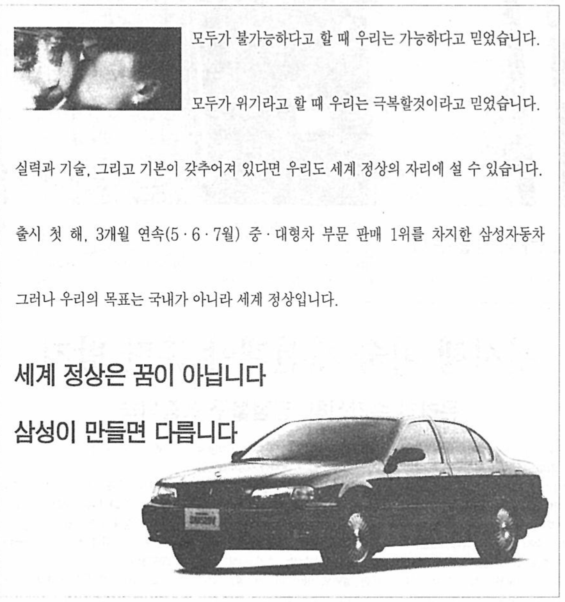
검열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의 세계가 좁아지는 것
힘들어도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제일주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경제성장의 환상 ① 경제성장이 만인의 부(富)를 보장할 수 있는가
3. 경제성장의 환상 ②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매진하면 한국이 경제대국 될 수 있는가
4. 경제성장의 환상 ③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이데올로기의 절정, 세계화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5.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인간중심의 성장, 만인을 위한 경제체제, 자립적 경제토대를 고민하자

현실성없는 '선진국' 미끼 더 이상 안 속는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뒤늦은 입장에서 기술선진국과 우리 기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산업의 기술 자립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외국기술 도입에만 치중하는 현상태로는 절대로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선진국은 될 수 없다. 사진은 우리나라 5대 재벌기업중 이미지 선호도 1위인 삼성그룹의 자동차광고.

작금의 세계경제질서는 무역국경없는 세계화, 규제없는 무한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은 '자기증식하는 가치(self-valorising value)'로 정의된다.

100원을 200원으로 만들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200원을 300원으로 만들려고하며, 이러한 가치증식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려고 한다.

자본의 가치증식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본은 자기의 팽창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각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무역, 외환, 자본이동을 자유화하기를 바라며,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조세제도, 산업보호정책, 경쟁촉진제도, 환경규제,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등이 균일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야만 자본은 세계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의 세계화(globalisation of capital)이다.

무한경쟁은 한편으로는 경제주체들을 끊임없이 혁신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처지는 도태자, 낙오자들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정부와 재벌은 그래서 "우리는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질서가 선진국, 후진국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무역규범이 확립되지 못하고 여전히 약육강식의 선진국 중심주의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재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온 국민이 고통을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을 위해 매진하면서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며 국민들을 몰아간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적일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무한으로 경쟁했을 때 승리하는 쪽은 십중팔구 선진국이다.

약소국임이 절대로 분명한 우리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우리는 낙오되지말아야하며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책없는 무책임일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다운 삶에 기초하지 않은 물량위주 경제성장은 애초에 정부와 재벌이 모두다 잘살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했던 바와 달리,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전후의 원조경제,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하에서의 농업·공업간 불균형, 저축·투자간 불균형, 수출·수입간 불균형, 산업지역간 소득격차, 인플레심화, 외국원조와 차관 등으로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어온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IMF구제금융을 받기 전까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벌이나 정부는 세계 10대 또는 5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기 일쑤였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게 국가부도위기에다 국제신인도의 바닥을 헤매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위기에 처해 경제주권마저 빼앗기게 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위기를 불러온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들을 제대로 보고 진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성장주의와 선진국지향주의만을 설파하고 있는 정부와 재벌의 논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다. 그들을 신뢰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더군다나,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경제성장제일주의와 선진국지향주의는 아예 나라를 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참아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가전제품의 경우 생산량이 세계 3위, 자동차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하여 가전과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세계 3위와 5위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국내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제품이 엄밀한 의미에서 국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계기술에서부터 주요부품,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 기술에 의존하거나 아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첨단기술일수록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VCR 등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내장된 주요 핵심부품은 일본제품들로 메워져 있다. 심지어 고급시계는 껍데기만 국산일 정도이다.

현재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천만대 판매를 돌파했다는 PCS도 뜯어보면 그 안의 97%의 부품이 국산이 아니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은 가공조립분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반면, 소재, 정밀기계, 첨단산업 등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심하게 말해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본격적인 산업화가 뒤늦은 입장에서 기술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이 기술의 자립과 선진화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부와 재벌이 말하는 '선진국'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재벌이 나라 팔아 먹는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재벌은 단기적으로 저성장, 고실업이 불가피하겠지만 긴축정책을 통해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면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지배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자유화, 대외개방정책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투자유치, 시장경쟁 강화, 효율성을 증대시키면 5년 안에 다시 예전의 경제성장률을 되찾고 고도성장의 길로 나아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IMF가 요구하는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다.

IMF의 일차적 역할은 구제금융을 통해 개별국가의 대외채무상환불이행 사태가 세계적인 금융공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소방수의 역할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초국적자본이 채무국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IMF가 맺은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곧바로 드러난다.

첫째로 상품시장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개방이다.

국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이 폐지되어 외국자본이 거리낌없이 밀려들어와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전면적 장악이 보장된다.

외국자본의 국내주식취득 제한 폐지,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기업의 투명성 강화, 결합재무제표작성과 상호지급보증금지 등으로 재벌체제가 약화된다.

이는 개별적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 경제를 독점하면서 많은 해악을 끼친 재벌해체를 위한 조치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집어먹기 좋게 만드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셋째로 외국자본이 싼값에 한국경제를 인수하기 위한 초긴축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등 돈을 푸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IMF가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구제금융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높은 이자율을 통해 돈을 빌려준 해외금융자본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한국기업을 싼값에 사 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기업이 자기임의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외국자본이 한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김대중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정부에 세금도 내는 등 국가경제발전의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요즈음 외국인 투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모험의 가능성이 큰 새로운 투자는 극력 피하면서 주로 기존의 알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외국자본유입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줄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국가경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부와 재벌은 IMF를 그나마 국가부도위기에서 탈출하게해 준 존재로 보고 빚진 주제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태도로 모든 것을 내부의 문제로만 돌리고 부당하기 그지없는 IMF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를 당연한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준비와 대책없이 뛰어드는 것은 선진국이 되기는커녕 나라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선진국은 우리 사회 지향일 수 없다

설사 선진국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진국이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다.

선진국이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후진국보다 높을 지 모른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여유있는 20%와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80%의 가난한 사람들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높은 실직률과 사회복지의 감소 추세, 임시직 일자리의 증가로 불안한 노동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상대적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단순히 1인당 GNP뿐만 아니라 복지지수 또는 개발지수에 의해 개념화할 수 있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과 자원 그리고 생산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평균적 개념에 의해 추상적으로 규정될 뿐, 사회복지에 기초한 인간의 삶에 접근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또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분명히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힘을 키워 선진국이 되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능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당한 만큼 다른 약소국을 짓밟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올바른 입장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세력에 철저히 반대, 투쟁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한 입장이 섰을 때 인도네시아의 예와 같이, 전국민적 저항으로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소국의 입장이지만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희재
〈21세기경제문제연구소〉

진리·평화·창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미국의 버클리대학 등 해외 43개국의 72개 명문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을 맺어 국제교류의 기회를 최대한 열어놓고 있습니다.

세계유수의 교류협정 자매대학과 교육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최신의 학술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류협정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학문교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폭넓은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성장을 돕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국제민중회의 - IMF에 도전하는 민중

자본의 세계화, 전세계 민중 희생 강요 국가별 투쟁과 국제연대로 극복해야

임승재 기자

멕시코 (디아나 다미안)

싸빠띠스따, 평등 · 정의 사회 실현위해 투쟁

멕시코-미국-캐나다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시작부터 폭력적이었으며 멕시코 민중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체결되었다. 또한 협정은 미국 기업과 멕시코 기업들 사이의 불평등 경쟁을 인정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멕시코 생산시장의 붕괴를 야기했으며, 초국적 괴물이 멕시코에 자유로이 들어와 활개를 치게 하였다.

NAFTA에서 멕시코정부가 미국에서 옥수수를 싼값에 대량판매하게 하는 협정을 체결해 멕시코 농민들은 옥수수 수확물의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정부와 달러 환율에 이익을 주었다.

또한 NAFTA는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보다 많은 외국 기업의 설립을 촉진시켰고, 정부는 노동권에 관한 국제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주들은 피고용인에게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던 그날, 멕시코 원주민들로 구성된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권리를 찾기 위하여 도처에서 진출했으며 세계의 시선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치아빠스로 집중되었다.

멕시코인 대다수는 우리의 최상의 무기로 저항하고 있다. 단지 지탱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적 관점과 우리의 문화로부터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상적 처방이나 유일한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과 정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 실천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을 변화시키고 자연을 보존하며 단지 관용이 아닌 존경의 인간관계를 복원하며,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젊음의 목소리와 노인들의 지혜에 대한 존경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이 우리를 탄압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저곳, 세계의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반대하여 저항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교육할 것이고 착취를 비난하고 시민적 불복종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임승재 기자

임승재 기자

태국(니티랏 삼솜본)

IMF 노예로 전락한 태국정부에 대항해야

냉전 종식 이후, 초권력 블록, 특히 미국은 제 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를 모든 측면에서 서구적 방식으로 근대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제 3세계국가들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다국적기업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기구의 우산 아래 자동적으로 결합되었다. 지금 우리는 신제국주의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제 3세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식민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태국 정부는 아시아의 다섯번째 '호랑이'가 되고자 발버둥치면서 자유무역정책을 대대적으로 펴왔지만 그 결과는 거의 60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와 380억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였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추안 행정부가 IMF의 착한 자식이 되고자 스스로를 노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외채위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대다수의 태국 민중들이다.

현재 실업자는 2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도 부당한 임금을 강요받고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들을 돌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농민들은 농업생산의 고비용을 떠맡아야 하고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대신에 지역 자본가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고액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게다가, 경제위기는 교육과 범죄, 약물문제 등 모든 면에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여년간 '부자는 보호하고 빈자는 무시하라'로 일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한번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은 이제 국가가 자신들의 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난한 자들의 모임을 비롯한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들은 공식적 정치가 아닌 외부 집회와 운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에 개별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입법화 제안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임승재 기자

한국(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

초국적 자본의 침투, 전국민적 투쟁으로 해결해야

IMF구제금융에 따른 계속되는 경제불안과 부의 해외이전으로 한국의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한편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중산층이 몰락하는 양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 소 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냉전구조의 해체는 군산복합체를 기초로 한 세계경제질서의 전면적 재편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냉전체제하 대공산권 접점지역인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어져온 '틈새경제성장' 또한 동반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체제를 재편,구축하기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은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통해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금년 7월말 현재 정부는 실업자를 165만명(실업률 7.6%)으로 발표하였으나 금융연구원은 이미 전체경제활동인구 2100만명의 20%인 400여만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주단 17시간이내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500만명에 이른다.

1600억달러에 이르는 외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피땀을 흘려야 할 이땅의 노동자들은 그 성과를 고스란히 국내외 자본에 헌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본질은 초국적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국제관리통화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새로운 통화체제와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금리, 성장률, 실업률 등 과도한 IMF와의 협약을 재협상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조직률 12%수준의 기업별 노조체제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기업내 분배 투쟁에서 정치, 사회적 요구와 투쟁으로의 전환, 조직의 인력과 재정 그리고 요구의 중앙집중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한다. 한편 노동공급시장 장악과 경영참가를 통한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자본과의 대응에서부터 초국적 자본과의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 생존권을 넘어 민중생존권을 위해 연대해야 하며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중층적 이해와 사업배치 그리고 투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와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IMF와 자본의 세계화에 고통받으며 대항하고 있는 전세계 민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국내 25개 진보단체가 주최한 서울국제민중회의(People'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가 지난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국제회의실에서 "IMF에 도전하는 민중 - 신자유주의, IMF,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열렸다.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의 이창근씨는 "자본의 공격이 민영화, 탈규제화되는 공통의 조건 속에서 각 국의 투쟁전략, 전술 경험을 공유하면서 각국 민중들의 투쟁을 국지적으로 상승시키고, 국제연대운동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15개국 3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진 이번 회의는 크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IMF에 맞선 각국 민중들의 투쟁'과 '국제적 수준의 민중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소개와 세계민중의 대안적 전략 모색'이라는 두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IMF에 맞선 각국 민중들의 투쟁'은 독일 훌거 하이데 교수의 〈세계시장, 신자유주의, 그리고 살아있는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태국, 멕시코, 프랑스, 한국 등 각 국가별 사회상황과 투쟁사례가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국제적 수준의 민중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소개와 세계민중의 대안적 전략 모색'에서는 콜린 하인즈의 〈기회는 위기로부터 나온다〉는 주 발제와 자유무역협정과 WTO를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 아펙(APEC)을 반대하는 민중회의, 노동자 민중의 권리방어를 위한 아시아회의 등의 투쟁네트워크 소개와 민중규범에 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밖에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 보건의료, 학생운동, 환경 등 6개부문의 워크샵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여타 학술회의의 형식적인 토론과정과는 달리 발제자와 회의 참여자간의 5시간이 넘는 활발한 토론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국제연대의 구체적 방법, 국제연대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토론의 주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 "연대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 각성하는 것이 국제연대의 1차적인 과제이다", "국제연대란 외부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즉각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등 이때까지 원칙적, 선언적 의미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연대'의 현실을 반영하듯 다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논의들이 오갔다.

그러나 연대전선 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의 토대와 함께 건설해야할 명확한 상부구조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21세기 경제협력권을 형성하고 단일통화권에 기초한 연대권력 형성을 모색할 수 있는 '동아시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노동자, 민중의 권리방어를 위한 아시아회의"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지난 5월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열린 "노동자, 민중의 권리방어를 위한 아시아회의"는 아시아대륙 각국의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국제적 투기업자들과 IMF, 세계은행들의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전례없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국제금융 강대국, 특히 미국의 필요에 의해 아시아 여러나라들을 속박시키는 APEC 등의 조약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보다 폭넓은 아시아 회의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학술부

임승재 기자

프랑스(크리스토프 아귀똥)

프랑스 실업자 운동, 유럽 사회운동의 승리

실업인구는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 나라별로 실업문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남부유럽의 경우, 실업수당이 거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가 번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는데 있어 가정의 사회적 연계망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에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실업자들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3천 2백만명의 실직자들과 어떠한 형태의 실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25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들, 전례없이 증가하는 임시직 노동자들 2천 7백만명을 포함 총 6천만명의 실업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유럽에서 무척 낮은 상태이다.

1997년 겨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실업자 운동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수년동안의 지속적인 활동과 투쟁이 그 기초가 되었다. 이번 실업자운동은 실업자들이 스스로를 운동세력으로 조직화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의 전반적인 황폐화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또 실업자운동은 녹색당, 공산당에서부터 극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특히 사회당과 조스팽 총리에 대해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프랑스 실업자들이 유럽 전역을 행진한 것을 계기로 형성된 유대관계와 그들의 정치권에 대한 압력의 효과 등으로 운동은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97년 독일의 실업자운동, 벨기에 빌보르드 공장의 파업에 대한 지지, 유럽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6월, 실업자 행진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였을 때 사회적 유럽의 건설을 위한 룩셈부르크에서의 노동조합의 시위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회적 유럽 정상회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유럽의 다른 얼굴들을 보여준다. 분명히 사회적이고 민주적이며 사회운동의 승리자로서의 얼굴이다.

연수원생모집

야간 10주 대학(원)생 과정

○모집과정 : 영어
○교육기간 : 1998. 10. 8(목) ~ 12. 15(화), 10주
○대　　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타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함)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7 : 30 ~ 19 : 20)
○등록기간 : 1998. 9. 14(월)부터 선착순 접수

야간 10주 일반인 과정

○모집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등 24개 외국어
○교육기간 : 1998. 10. 8(목) ~ 12. 15(화), 10주
○대　　상 : 일반인(만 18세이상 자격제한 없음)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9 : 30 ~ 21 : 20)
○등록기간 : 1998. 9. 14(월)부터 선착순 접수

※ 문의처 : 연수평가원 사무과
961-4174/5, 962-7119, FAX : 962-0575

1998. 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학생예비군 기본교육훈련 실시

우리대학교 직장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예비군은 학과(대학원생은 각 대학원)게시판에서 본인의 훈련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비상계획관실(예비군 본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1. 대학(대학원)학과별 교육일정

일자	교육대상학과	훈련장소
9.21(월)	서양어대학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이태리어과, 포르투갈어과)	금곡훈련장 (동대문구예비군훈련장)
9.22(화)	서양어대학(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동양어대학 전체	〃
9.23(수)	상경대학 전체	〃
9.24(목)	법과대학 전체, 사회과학대학 전체, 사범대학 전체	〃
9.25(금)	장교, 장 · 단기하사, 각 대학원 전체	〃

2. 교육대상 : 일반하사, 병→전역 1~5년차, 장교, 장 · 단기하사 → 전역 1~7년차 학생예비군.
3. 교육훈련 제외대상자
가. '98년도 전역 예비군
나. '98년도 주민등록지에서 6시간이상 교육을 필하고 기타 보충교육훈련에 불참사실이 없는자
다. 전역 6~8년차(일반하사, 병) 8년차 이상(장교, 장 · 단기하사)학생예비군
라. '98년 8월 31일 이후 비상계획관실에 예비군 대원 신고자 ('98년 10월 8일 교육예정)
4. 유의사항
가. 대학(대학원)학과별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할 것.
※ 장교, 장 · 단기하사 학생예비군은 9월 25일(1조) 별도 학급편성 교육
나. 수송버스 이용희망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바람.
다. 개별입소시에는 07:50까지 금곡훈련장(미금시 소재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것.
라. 자가차량 주차공간 없음(임의 주차시 위반차량 적발 및 견인)
마. 대중교통 안내 : 청량리→금곡 165-3(일반), 천호동→금곡 1-3(좌석, 일반),
강변역→금곡 9-1(좌석)
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필히 휴대할 것.
사.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은 소집통지서를 교부 하지않고 홍보수단(학과게시판 공고, 교내 전용 게시판 공고, 외대학보 게재, 교내방송 등)으로 대체되니 착오없기 바람.
※ 지연도착자(08:00이후 군부대 도착자)와 복장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복 미착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색상이 일치되지 않은자)는 귀가조치 및 불참처리됨.

1998. 9.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대학원 석 · 박사과정 포함)또는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 · 출입 신고 :
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전입신고
사유발생(등록후)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사무소 병사담당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직장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휴학 및 제적생(자퇴) 전출신고
사유발생 14일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본인이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전 · 출입 신고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양식 : 비상계획관실에 비치)
2) 학적변동 신고서(학적과 비치 : 복학생)및 등록금 납입영수증 (신입생, 복학생)

2. 현주소 변경시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현주소 변경시 비상계획관실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규위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전 ·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⑥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98. 9.

비상계획관실장

예비군교육 실시

대학직장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출석하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1998. 10. 12(월) : 자연과학대학, 정보산업공과대학, 대학원
10. 13(화) :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포르투갈어과, 이태리어과
10. 14(수) : 폴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체코어과, 항가리어과, 유고어과, 경상대학
10. 15(목) : 동양학대학, 인문대학
2. 교육장소 : 보병 제5171부대 3대대(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교장)
3. 입소시간 : 오전 07:50분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4. 비교육대상자
가) '98학년도 전역한 예비군
나) 지역에서 8시간이상 교육이수자
다) 일반하사 · 병은 6년차 이상(장교, 장 · 단기하사는 8년차 이상)
5. 교통편
가) 서울거주자 : 오전 06:50분 출발
(출발장소 : 종합운동장 전철역 근처 주차장)
나) 성남, 모현거주자 : 오전 07:30분 출발
(출발장소 : 학생회관 앞 도로)
6. 유의사항
가) 훈련통지서는 공고로 대신함.
(교육대상자명부 학과장실, 학과사무실 비치)
나) 지각하지 말 것. (시간내 미도착자는 귀가조치)
다) 군모, 군복, 군화, 고무줄 반드시 착용(복장 불량자는 귀가조치)
라) 신분증 반드시 지참.
마)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관실로 문의바람.

※ 전화 : 0335-30-4111, 4119

1998. 9.

용인캠퍼스 예비군 연대장

미디어 바로잡기 나선 연구하는 여성모임

미디어 왜곡, 우리가 막겠다

언론에 의해 왜곡된 여성상, 연구·토론 통해 알려내

항상 일을 저지르는 이의정, 언제나 사고뭉치 이의정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는 송승헌… '남자셋 여자셋'에 나오는 왜곡된 여성의 모습이다

MBC 드라마 '보고 또 보고'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전 드라마와 별다를게 없는 이 작품이 인기를 끄는 요인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갈등 해법이 경제난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얼마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에 한 대자보가 붙었다. '은주(김지수분)라는 인물 속에는 여자란 남자 마음에 쏙 들게, 시댁 식구 눈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부추김이 담겨있다'며 여성을 그리는 시각에 대한 과감한(?) 문제제기를 했다.

"평소에 불만이었던 부분이다. 사회가 강요하는 왜곡된 여성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이민정(서학·영어4, 휴학)양의 말처럼 이 대자보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 대자보는 '미디어속에 나타난 여성상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붙인 것이다. 모임을 만든 총여학생회장 배김선혜(서학·영어3)양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위력의 증가 속도를 방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여전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TV 드라마는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이며 은연중에 가부장적 의식을 주입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방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으로 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테면 가정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는 남자인 반면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은 주로 여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는 국민일보 5월9일자 기사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현재 모임은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부총여학생회장 박진희정(서학·영어3)양은 "작년 동아대생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도한 MBC기자가 '더러운 몸으로 사는 것 보다 차라리 죽는게 더 낫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며 그들의 모임은 이런 내용이 아무 거리낌없이 방송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회원인 박윤혜진(서학·영어1)양은 "외국 비디오나 영화를 볼 때 우리말 번역과 원어를 같이 보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작품속의 여자가 나이가 더 많더라도 남자가 반말을 하고 동갑인 남녀 사이에도 여자는 높임말을, 남자는 반말을 쓰고 있다"라며 영화 번역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활동이 언론매체 전체를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대자보나 그외의 활동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학생들에게 알려내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배김선혜양은 말한다.

그들의 활동이 비평을 넘어 실천으로 외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장서윤 기자

너비아니는 '불고기'의 옛말로, 세계인의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너비아니

<13>일본인의 종교와 의식구조 I

두 종교를 지닌 일본인

일본의 종교인구를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전체 인구수를 훨씬 넘는다. 1997년도 '조일(朝日)연감'에 의하면 종교인구는 총 인구의 1.41배나 된다. 구체적으로는 신도(神道)계가 1억 165만 6천명, 불교계가 6,565만 4천명, 기독교계가 97만 5천명, 기타(생장의 집, 천리교 등)가 734만 1천명이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일본인은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종교적인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의 종교인구는 각 종교단체로 하여금 소속 신자수를 보고하게 하고 이를 단순 집계한 숫자이다. 따라서 각 종교단체는 실제 신자수보다 늘여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총 인구의 1.4배가 넘는 종교인구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신도 신자수 중에 불교신자와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신도 신자이면서 동시에 불교신자인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일본인의 신앙태도에서 우리는 일본인의 종교의식, 더 나아가서는 국민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동경과 같은 대도시라면 모르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가의 일반가정에서는 불단과 신도의 신을 모신 가미다나가 한 집안에 함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 종교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태어났을 때는 신도의 신에게서 축복을 받고 죽었을 때는 불교에 의해서 구제를 약속받는다. 태어나면 우선 신사에 참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씨신(氏神)에 대한 출생신고로써 구성원이 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이 첫 신사참배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남자 아이는 생후 31일째, 여자 아이는 생후 33일째에 행한다. 또 '7, 5, 3'이라 하여 남자 아이는 세는 나이로 3살과 5살, 여자 아이는 3살과 7살이 되는 해의 11월 15일에 신사참배를 한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거의 모순을 느끼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신도와 불교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도와 불교가 원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종교의 현세관과 내세관은 정반대이다.

신도가 현세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불교는 현세 부정적이고 내세 긍정적이다.

일본인들이 신도와 불교 모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세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현세 부정적인 불교가 아니라 현세 긍정적인 신도이다. 출생과 관련되는 통과의례나 결혼식에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신도이다. 그러나 장례나 조상에 대한 제사는 불교가 담당하고 있다. 사후를 보장할 수 있는 종교는 극락정토를 상정하고 있는 불교이기 때문이다.

김태정
〈일본어과 교수〉

"힘들 때 주저없이 들러주세요"

적성검사·집단상담등 실시하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상담은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다" "상담을 받는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로 상담소 찾기를 꺼려 한다. 그러나 용인배움터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강이영 상담부장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에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 안에서 자기성장을 하려고 상담소를 찾아온다. 실제로 문제의 해결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양 배움터 학생회관 2층에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상담소)란 곳이 있다. 이곳에는 현재 소장 한명과 서울, 용인 각각 전문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부장 1명,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조교 2명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딱딱한 상담방식과 달리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각종 심리검사(성격·적성·자아개념검사 등)를 실시한다.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주는 적성검사는 한 달에 2, 3번 미리 공고하여 시행한다. 그외 검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찾아가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둘째, 개인상담도 실시한다. 상담심리 전문가에게 1주일에 1-2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년간 상담을 받아온 이경은(자연·미생물 4)양은 "집안 고민, 성격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 성격의 장점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셋째, 상담·취업·유학정보 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소에서 구비하고 있는 서적중 자료집은 하루, 도서는 일주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유학을 원하는 경우, 그 나라 언어를 전공하는 교수님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최신 정보도 받아 볼 수 있다.

넷째, 집단상담도 가능하다. 매 학기 다른 주제로 10여명 내외 학생들과 함께 자기표현훈련, 잠재력개발, 싸이코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싸이코 드라마는 창작된 극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해 보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봄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강이영씨의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집단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도 실시한다. 검사결과를 개개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상담소의 모든 검사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다. 그러나 상담소를 찾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강이영씨는 "4년동안 잘 모르고 지내다 4학년때 진로상담을 하러 온 학생이 '저학년 때 미리 왔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며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장서윤 기자

생활 시평

우리학교 나빠(?)

서강대 학생들 "우리학교 좋아".

지난 9일(월)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우리학교를 비롯 서울대, 고려대 등 11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서비스 NCIS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이다.

조선일보와 한국생산성본부, 미국 미시간대학 국가품질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자기 학교의 교육품질과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을 1백점 만점으로 산출한 것이다.

조사결과 서강대(56점)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숙명여대(53점)·연세대(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에 우리학교는 성균관대와 함께 4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한마디로 "우리학교 나빠"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현재 학교서비스와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다시 진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학교를 선택하겠느냐'는 고객충성도 조사 결과 상당히 낮은 점수(20점대)가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지난학기 발생한 재단사태로 인해 학교(정확히 말해 학교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조사대상에서 용인배움터가 제외됐다는 점, 조사취지 자체가 교육을 생산과 소비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명백한 한계이다.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리학교 교육서비스의 열악함을 검증받았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열악한 학습환경(서울-비좁은 배움터와 강의실, 부족한 자치공간, 용인-넓지만 여전히 부족한 시설, 교통문제)은 조사결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외대인의 반응이 나올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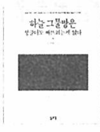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학교를 포장해온 수식어 '최우수 국책대학·세계화부문우수대학·대종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 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자문해보게 만든다.

문화부

문화 엿보기

새책

하늘 그물망은 성글어도 빠뜨리는게 없다
김성대 지음
살과 꿈 9,500원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 개도국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이른바 '환경재앙'이 인류의 파멸을 예고하듯 다가오고 있다. 편리와 풍요만을 위해 무리한 개발을 꾀하면 자연도 망가지고 인간도 망하고 말 것이다. 이책의 저자는 이러한 재앙을 막을 해법을 동양철학에서 찾고 있다. 노자에서 붓다, 예수로 이어지는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다.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정치·종교 전반에 걸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혁명이 필요함을 작가는 강조한다.

위험한 동화
아흐말탄 지음
이난아 옮김
좋은날 7,000원

이책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터키소설이다. 터키에서는 96년 발행된 이래 현재까지 48쇄를 거듭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단 한편의 소설을 발표한 40대 작가가 두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로 터키사회에서 폭력과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사회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옛 애인과 새 애인 사이에서 방황하는 '외로움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처음 선보이는 터키 작품인 만큼 생소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터키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공연

Zoom In
문의 764-3380
763-6238
관람료 7,000~9,000원

극단들의 모임 '혜화동 1번지'는 지난 2일(수)부터 오는 11월 8일(일)까지 연극실험실과 혜화동 1번지에서 '98 혜화동 1번지 페스티발'을 갖는다.

이달 초 극단 '백수광부'의 1막 공연인 '수족관 가는 길'(원작 크뢰츠/ 연출 이성열)에 이어 2막 공연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극단 '작은신화'가 'Zoom In'(원작 레이몬드 카버/ 연출 최용훈)을 무대에 올린다. 미국 단편작가 카버의 여러 단편에 나타난 이미지와 소재, 인물들을 혼합구성한 'Zoom In'은 '사랑에 관하여' '거리에서' '이별그림 혹은 동행' '수집가' 총 4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다.

문화 마당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14일(월)	15일(화)	16일(수)	17일(목)	18일(금)	19일(토)
용인	"여성문화제" 후복관 4층 소극장 430 (14일~15일)		"여성문화제" 도서관 3층 세미나실 430	"여성문화제" 후복관 4층 소극장 430 (17일~19일)		
					서반아어과 돈키호테 (18일~19일)	
				세계영화제 도서관 3,4층 세미나실 (17일~19일)		
서울	온누리 수족침 강좌 인문과학관 402-1 18:00 (14일~16일)					

서울배움터

구분/요일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저녁	대학원생 백반	대학원생 일품요리
월(14일)	육개장 (₩1,500)	설렁탕 (₩1,500)	오무라이스 (₩1,500)	무우어묵국 (₩2,000)	콩나물국밥 (₩2,500)
화(15일)	콩나물맑은국 (₩1,000)	불고기덮밥 (₩1,500)	오징어볶음덮밥 (₩1,300)	콩나물김치국 (₩2,000)	순두부찌개 (₩2,500)
수(16일)	애호박된장찌개 (₩1,300)	야채볶음밥 (₩1,400)	잡채밥 (₩1,500)	롱배추국 (₩2,000)	치즈포크커틀렛 (₩3,000)
목(17일)	순두부찌개 (₩1,300)	산채비빔밥 (₩1,400)	소고기모듬야채덮밥 (₩1,500)	호박고추장찌개 (₩2,000)	애호박된장찌개 (₩2,500)
금(18일)	시골우거지국밥 (₩1,400)	돈육볶음덮밥 (₩1,400)	참치김치볶음덮밥 (₩1,400)	대구무우국 (₩2,000)	떡만두국 (₩2,500)

용인배움터

구분/요일	어문관 중식1	어문관 중식2	어문관 석식	후복관 조·중식	후복관 중식2	후복관 석식
월(14일)	고추참치덮밥 (₩1,400)	치킨까스 (₩2,000)	어묵백반 (₩1,400)	참치김치국 (₩1,400)	모듬커틀릿 (₩2,000)	우거지된장국 (₩1,400)
화(15일)	오징어볶음덮밥 (₩1,400)	일식돈까스 (₩2,000)	건새우아욱국백반 (₩1,400)	콩나물국 (₩1,400)	하이라이스 (₩1,500)	쇠고기무국 (₩1,400)
수(16일)	양송이볶음밥 (₩1,400)	설렁탕 (₩1,800)	조개순두부찌개 (₩1,400)	두부배추국 (₩1,400)	모듬커틀릿 (₩2,000)	어묵국 (₩1,400)
목(17일)	소고기덮밥 (₩1,400)	새우커틀렛 (₩2,000)	닭볶음백반 (₩1,400)	재육감자찌개 (₩1,400)	콩나물덮밥 (₩1,500)	감자맑은국 (₩1,400)
금(18일)	김치볶음밥 (₩1,400)	산채비빔밥 (₩1,800)	보리밥과된장찌개 (₩1,400)	북어달걀국 (₩1,400)	모듬커틀릿 (₩2,000)	무다시마국 (₩1,400)

98세민전 둘째주

세계민속공연 지상중계

'화해' 위한 당당한 '도전'

민속춤 · 노래, 통일염원굿 … 4천명 참가

"내 제자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러 왔다"는 헝가리어과 교수 꼬바치샨도르씨, "딸이 폴란드 민속 춤을 춘다고 해서 왔는데 벌써 세번째 세민전 관람이다"는 하의순씨, "자연대생이 세민전에 참여하지 않아 아쉽지만 자원봉사로 행사를 돕고 싶다"는 민경국(자연·물리3)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세계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생각으로 기대된다"는 김길수(강남대 사회복지 1)양. 말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

지난 12일(토) 여의도 KBS홀에서 '도전과 화해의 청년마당' 98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둘째주 행사이자 세민전의 꽃으로 불리는 세계민속공연(민속공연)이 개최됐다.

올 민속공연의 주제는 '화해'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며…', '세계인들의 만남과 인류공동 번영의 약속', '세계가 하나되는 대동의 마당'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무대의 막이 올랐다. 한 여인의 '독무'가 한동안 진행된다. 민족의 '한'인 분단을 표현한 춤이 진행되자 주위는 이내 숙연해진다. '비나리'의 연주는 무대를 더욱 엄숙하게 만든다. 이어서 밀림장면과 현대사 50년의 장면이 교차된 영상이 펼쳐진다. '임수경양의 방북장면' '남북합의서 조인 장면' '민족대단결을 외치는 사람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성조기'…. 우리가 발딛고 서있는 이땅의 역사를 그린 영상이다. 곧이어 주위는 밝아진다. "도전과 인류화합의 장을 세민전이 열겠다"는 사회자의 개회선언. 이제 세계문화를 소개할 차례다. 서반아어과의 '플라멩고'와 '탱고'를 시작으로 각 나라사람(물론 학생들이 분장했지만)들이 나온다. 중국·루마니아·아프리카·아랍·폴란드… 각기 짧게는 여름방학 내내, 길게는 한 학기동안 연습해 온 민속음악·춤, 뮤지컬을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날 총 4천명이 관람했다)에게 선보였다. 외국인들처럼 차려입은 출연진의 옷은 공연의 에 또다른 볼거리였다. 특히 의상으로 시선을 끈 팀은 아프리카 토속음악팀. 남자는 '타잔', 여자는 '제인'처럼 차려입고 아프리카 민속노래를 열정적으로 불렀다. 서반어과의 '탱고' 춤도 역시 그 화려함에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첫번째, 두번째 공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아랍어과 민속춤과 러시아어과 민속춤이 큰 환호를 받은 것은 올해도 여전했다. 영어과와 불어과가 마련한 흥겨운 리듬의 '뮤지컬'은 각국의 민속 리듬만을 듣던 관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맛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제 공연은 닫는 마당이다. 통일의 배가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지닌 '통일염원 굿'이 선보였다. 남도 뱃놀이를 각색한 이 굿에서 어부복장을 한 이들이 객석으로 달려가면서 그물을 던지는 장면은 인상깊은 장면으로 기억된다. 총 출연진이 나와 '…영원히 기쁨을 알 수 있는 그곳으로 가보자…'라는 세민전 노래를 끝으로 2시간 30분의 공연은 막을 내렸다.

김민석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 98 과천세계마당극잔치

700원 들고 과천으로 가자

마당극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찾아보니 'open air theatre'라고 되어 있었다. 왜 open theatre 가 아니고 open air theatre일까? 아마도 우리 말에서처럼 '살아 숨쉰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것은 아닐는지….

'98과천세계마당극큰잔치가 열린다. 많은 문화행사가 주위에 널려 있지만 열린 공간에서 연기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관객이 직접 극에 참여하는 마당극은 다른 연행장르와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 화려한 조명이나 기기묘묘한 특수장치가 없어 편안하고, 함께 소리지르고 노래하면서 느끼는 집단성, 동질감은 비디오방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독특함이다.

열린 공간의 매력은 그것 뿐만이 아닐 것이다.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내보내고 기껏해야 설문조사, PC통신 따위로 반응을 조사하는 대중매체와는 달리 즉석에서 연기자와 관객의 교감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날의 분위기, 관객의 호응 정도에 따라서 극이 부분부분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연, 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공연 멋지지 않은가?

11일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전야제공연으로 시작한 마당극큰잔치는 20일까지 진행된다. 황홀하게도 모든 공연은 무료이다. 작은 용돈 쪼개어 사람 바글바글대는 종로에서 영화 보느니 700원 지하철표 하나 끊어서 과천에서 마당극 수십편 보는 것은 어떨까? 구제금융시대에 쪼들리는 주머니에도 문화인인양 행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나 뿐 아니라 많은 외대인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번 보고난 사람은 틀림없이 시간 쪼개어 다음날 달려갈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마당극 뿐 아니라 잘 조성된 과천시내도 볼거리, 쉴거리이다. 서울 근교 도시로서는 드물게 시내 한가운데에 커다란(정말 크다) 공원이 있고 과천청사앞의 넓은 잔디밭, 곳곳에 넉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쉼터는 하루 소풍장소로도 부족함이 없다. 자! 이번 주에는 수업 끝나면 도시락 싸들고 과천으로 놀러가는 것이 어떨까?

이문희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문화국장, 사회·신방 3〉

서울, 2회 세계영화제를 미리본다

5일간의 죽이는(?) 이야기

심야영화상영 등 다양한 참여 공간 마련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살인'을 얘기하고자 한다."

2회 세계영화제 준비위원장 박주연(서양·서반아어 3)양이 말하는 영화제의 목표다. 영화제는 그 목표만큼이나 '살인'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주목할만한 영화로 '마지막 만찬'(쿠바/토마스 구티에레스 알레아/1976)을 들 수 있다. 쿠바의 생존을 위협하는 서방세계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경고를 18세기 쿠바흑인(노예)의 저항을 통해 사실주의적이고 연대기적 구성으로 그렸다. 이밖에도 흑포사건(중국/황지엔신/1985), 파키스탄으로 가는 열차(인도/라멜라 룩스/1997), 마지막전투(프랑스/뤽 베송/1984) 등이 치열한 주제의식을 담아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영화제는 '살인'을 벗어나 다양한 측면의 삶도 담아내고자 노력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후라이드 드래곤 피쉬'이다. 심오한 주제의식을 담은 영화에서부터 일본신세대의 삶을 담아내는 다양한 작품세계로 각광받는 이와이 순지 감독의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고난도의 감각적인 화면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들의 기호를 정확하게 포착하며 그들의 감각과 정서로 영화를 이끌어간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심야영화상영도 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노천에서 스크림, 원령공주 등 6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강연회도 개최한다. 강연회는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의 현실'에 대해, 이명세 영화감독이 '내 영화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영화판의 싸움꾼' 혹은 '투사' 집단으로 불리며 활발한 다큐멘터리 제작작업을 벌이고 있는 독립영화집단 '푸른 영상' 대표 김동원씨의 '영화운동의 전망'에 대한 강연도 있다. 그 외에도

'안성기 회고전'과 영화서적, 음반을 염가판매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50여명의 준비위원과 자원봉사단이 6월말부터 약 3개월동안 방학도 반납한 채 영화제를 준비했다. 학생들이 대학내 문화향유의 주체로 서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취지를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준비위원회측은 영화제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영화상영 등 '시네마떼끄' 형태의 공간과 세미나 같은 상설화된 자유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남현주 기자

문 화 단 신

용인, 돈키호테축제 열려

전국 서반아어과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열 세번째 '돈키호테 축제'가 오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용인배움터에서 열린다.

'같은 언어,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의 우의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행사에는 경희대, 부산외대등 13개 대학 500여명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둘째날에는 학술제와 체육대회, 마지막날에는 각 학교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특히 학술제에는 지역학강연과 토론 외에 스페인 전통요리 강습, 플라멩고, 탱고를 비롯한 춤강습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과회장 김호(서학, 서반아어3)군은, "서반아어과인의 행사지만 다른과 학생들도 많이 와 주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용인, 누리에 정기전시회 열어

지난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사진동아리 '누리에'의 열 일곱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총 28개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자유로운 주제의 다양한 사진을 접할 수 있었다. 풍경을 주로 찍던 예전에 비해 올해는 집회장면, 뛰노는 아이들, 담배 피는 여자사진 등 사람의 모습을 찍은 작품이 많았다. 또 시골집이나 물레방아 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있었다.

행사를 준비한 이지한(공대, 제어계측 3)군은, "찍은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며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진 감상법을 설명했다.

서울, 온누리 수족침 강연회 개최

온누리 수족침은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인문과학관 402-1 강의실에서 매일 저녁 6시 수족침 기본강연회를 개최한다. 수족침으로 병을 고친 우리학교 실용영어부 Marry Elleu Collius 교수의 강연 후 안영남(무역·상경 92)군의 지도로 실습이 진행된다.

김이현(서양·영어 2)군은 "서양의학에 익숙한 우리에게 동양학의 신비함과 더불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행사의 목표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지 온누리 수족침방에 오면 수족침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우리말 살려쓰기

수퍼울트라캡숑나이스짱 광수생각?

말 같지 않은 말은 이러한 말을 두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일간지 광고란에 버젓이 책광고라고 올라온 광고 말입니다. 먼저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유행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젊은이는 '수퍼울트라캡숑나이스짱' 같은 말을 걸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즐깁니다. 상술만 뛰어난 이들은 이때다 싶어 겉만 반지르르 꾸미는 장삿속이 더해갑니다. 수퍼, 울트라, 캡, 나이스, 짱 같은 말은 하나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한데 엮은 말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같은 말이 팔리지 않게 제도로 막아야 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팔아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거품이라고 보려 해도 비슷한 빛깔을 가진 '롱다리/숏다리'는 일상말로 굳어버려 더 걱정입니다. 똑같이 겉멋만 차려 따라하느냐 알맹이를 채우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최종규
〈네덜란드 2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계를 만나보십시오

제2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영화제

The 2nd HUFS World Film Festival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영화 상영작 및 행사내용

	14일(월)	15일(화)	16일(수)	17일(목)	18일(금)
2시	자유, 이것이 천국이다 (러시아)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폴란드)	아비아의 여름 (이스라엘)	카타리나 블롬 (독일)	마지막 만찬 (쿠바)
4시	filminuto (쿠바)	파키스탄으로 가는 기차 (인도)	비밀의 얼굴 (터키)	비앙카 (이태리)	침묵에 관한 의문 (네덜란드)
6시	개막식	흑포사건 (중국)	피쇼테 (브라질)	후라이드 드래곤피쉬 (일본)	폐막식
8시	개막작 야생동물 보호구역(한국)	1956년, 깡패가 세상을 지배한다 (태국)	킬러 (미국)	하류 (대만)	폐막작 마지막전투 (프랑스)

안성기 영화 다시보기 — 대학원 소극장 6104

	15일(화)	16일(수)	17일(목)
12시	바람불어 좋은날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얀 전쟁
2시	만다라	꿈	칠수와 만수
4시	깊고 푸른밤	남부군	개그맨

영화와의 만남 — 강연회(대학원 소극장 6104)

	15일(화)	16일(수)	17일(목)
6시	김동원 (푸른영상대표)	문성근 (영화배우)	이명세 (영화감독)

심야상영 — 노천극장(22:00~익일02:00)

	15일(화)	16일(수)	17일(목)
10시	부기나이트 수프림1	원령공주 스크림2	부기나이트 샤이닝

부대행사

- ▶ 영화서적 / 음반 염가 판매
- ▶ 포스터 거리전
- ▶ 기념품 판매
- ▶ 감상문 공모 및 설문조사

기 타

▶ 주요 상영작은 대강당.
안성기영화 다시보기는 소극장.
심야상영은 노천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임

만나보기 - '한총련학부모협의회' 준비하는 김종맹 목사

"학생들은 가장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선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마다 의로운 병기로 쓰임을 받아 왔습니다.(중략)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사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부족한 저의 소견과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귀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구속하고 학생연합운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중략)"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이자 수배자인 아들의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그 아들인 김지목군은 현재 한신대 4학년으로 동아리연합회 회장이며, 물론 수배중이다.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법자(?)로 살고 있는 김군의 아버지 김종맹(50, 은평교회 담임목사) 목사는 한총련학부모협의회(가칭)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96년 연세대 사건과 97년 한양대 이석씨 치사 사건을 보면서 정부의 무자비함을 느꼈지. 언론은 더욱 심했어. 그러나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달라질 줄 알았는데…" 김목사는 더욱 심해진 정부의 한총련 탄압을 보면서 한총련학부모협의회 결성을 결심했다. "연세대, 한양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건들 때문에 이적 꼬리표가 붙었잖아. 사회단체나 재야단체가 나서주기를 바랬지. 한총련 문제만은 외면하더군." 김씨는 평소에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어서 오랜 생각 끝에 학부모협의회 결성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목사는 "겪어 본 사람만 알지"라며 수배자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토로한다. "매일 경찰서, 보안수사대 등에서 전화를 걸어 아들을 탈퇴시키라고 한다. 다른 부모들한테도 똑같은 협박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는 "그래서 학부모협의회가 결성되면 수배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을 먼저 위로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한다. 또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규탄대회도 진행할 것이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최종 판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과 재심청원 등도 진행할 생각이다.

"명동성당과 조계사에도 갔었어.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하고서도 참 열심히 살고 있더군. 그런데 부모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애. 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칼을 들이밀며 탈퇴서를 쓰라며 펑펑 울더군." 김목사는 부모들이 너무 형사들 말만 믿고 자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불의를 당당히 말하고 분해할 줄 아는 자식을 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죄를 지어 잡혀 간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김목사는 이렇게 말하며 부모들이 학생들의 주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운동에 대해 오해한다고 했다. 그러한 오해를 푸는 일이 학부모협의회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김목사는 학생들에게 부모들을 이해시키라는 당부도 했다. "운동도 중요하고 사회의 양심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것 모두 훌륭한 일이야. 하지만 부모님 설득도 중요해.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잘 해결해 나가야지."

다른 학생들도 모두 자기 자식이고 협의회 구성하는 일이 시대의 소명이라며 웃는 김목사. 그는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21세기 우리의 통일조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다. 학생들은 훌륭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키운다면 자식은 삐뚤어 질 수밖에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탄압하고 무시한다면 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젊고 귀중한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기자의 눈

구조조정과 대학언론

'구조조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오직 구조조정만이 어려운 상황의 유일한 탈출구인 듯한 착각이 든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문제가 되는 곳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하대학교 학보사다.

인하대 학교측은 지난 8월 17일 일방적으로 '학내언론개선안'이라는 구조조정안을 발표, 인하대 신문을 △주간에서 격주간으로 변경할 것 △학교 홍보 기능 강화 및 지면 성격 변화 △사칙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신문발행 중단을 경고했고 학생기자들이 반발하자 8월 24일 2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을 중단시켰다.

학교측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IMF 여파로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학교재정 악화로 주간에서 격주간으로 신문발행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하대 신문에서 학교 홍보 기능이 미흡했고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인하대 신문이 '누구를 위한' 신문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학교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학교측의 주장에 일면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측 방침은 신문발행 주체인 편집국(학생기자)의 의견은 배제한 상명하달식 통보방식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예산절감방안을 제안했다. 발행부수도 줄이고 기자들의 복지비도 일부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타대학 실례를 바탕으로 자체조판을 실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인하대는 지난 1학기에 총장 및 이사장 문제로 심한 학내 갈등을 겪었다. 1학기 학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이런 문제를 인하대 신문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업무태만일 것이다"

외대도 지난 학기 비슷한 학내 분규를 겪었다. 하지만 기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학내 분규 내용이 학보에 실렸기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물론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학교측은 올 5월에도 학보가 학내사태로 인한 수업거부 돌입과 부정편입학 사건을 1면에 실자 신문발행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편집장 이용욱(미술교육 3)씨는 학교측의 요구를 "지난 1학기 신임총장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불만을 품은 대학 수뇌부가 예산 절감 등을 내세워 학내 언론을 장악, 학교 기관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기득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거세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얼마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노조원들은 모두 해고대상자였다는 사실이 기억난다.

사회부

매체비평 - 북한 '미사일 사건'과 언론보도

잘 모르면서 큰소리만 '뻥뻥'

정보력 부재와 왜곡된 시각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

지난 8월 31일(월) 방송3사는 일제히 머리기사로 "북한이 신형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동쪽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우리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9월 4일(금)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는 발표 이후 방송은 일주일이 넘도록 미사일과 인공위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듯 무책임한 보도의 첫번째 원인은 관급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송사 취재 관행의 문제이다. 방송 3사는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는 내용을 국방부의 발표에 기초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성이나 군사문제에 대해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평양측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다'는 말로 공식입장을 유보(MBC만 단신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2천년 실전배치〉(2일) 〈"또 쏜다" 비상경계〉(3일), MBC 〈한일 공동대처〉(1일) 〈2천년 실전배치〉(2일), 〈북한 2탄 준비〉(3일), SBS 〈ICBM 체제 임박〉(1일) 〈2000년 실전배치〉(2일) 〈북 미사일 또 쏜다〉(3일)라는 보도를 통해 북한 대포동 미사일 실전 배치가 곧 가시화 될 것처럼 근거 없는 보도를 남발하여 긴장감을 조성했다.

두번째로 북한과 미국을 바라보는 방송사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폄하시키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월 4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공식발표가 있자 방송 3사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위성이 아니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논평과 일본 정부의 반응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특히 MBC의 경우 지난 6일 〈초미니 위성 가능성〉보도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사실이라면 발사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장 작은 위성을 쏜 나라라는 기록을 남겨야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평가 절하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 걸프전에 이어 최근의 수단화학공장 폭격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군사정보력은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대포동 1호가 발사대에 장착되는 것과 27일에 최종 발사 준비가 완료된 것까지 탐지…각국의 정보당국이 미사일 낙하지점에 대해 혼란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미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미국 엄중 경고〉 MBC 1일), 〈손바닥 보듯 본다〉(MBC 5일) 라는 보도를 통해 미국의 정보력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력 부재를 인정하고,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위성인지조차 가려내지 못하는 우리의 군사력에 대해 국민들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정보력에만 의존한 채 국가안보에 큰 허점을 보인 우리 정부에 대해 방송은 책임을 묻거나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00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는데만 급급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정보접근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북언론 교류의 활성화, 정보공개법의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강에스더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모니터부장〉

사회단신

오는 15일 전국농민대회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농민관련 단체는 오는 15일(화) '식량자급,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 보장'을 기치로 '98 전국농민대회(농민대회)를 개최한다.

10만여명의 농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농민대회에서는 국가 생존 기반인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회생의 관건인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에 반발, 적정 추곡수매가 확보 투쟁을 강력히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년까지 전농을 중심으로 농민대회가 진행됐던 것에 반해, 올해는 20여개에 달하는 농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농민대회에 대해 김정수(전농 사무국장)씨는 "계속되는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일한 만큼 늘어나는 농가부채 등으로 한국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라며 "올해 농민대회를 통해 농업현안과 농업개혁 내용이 정기국회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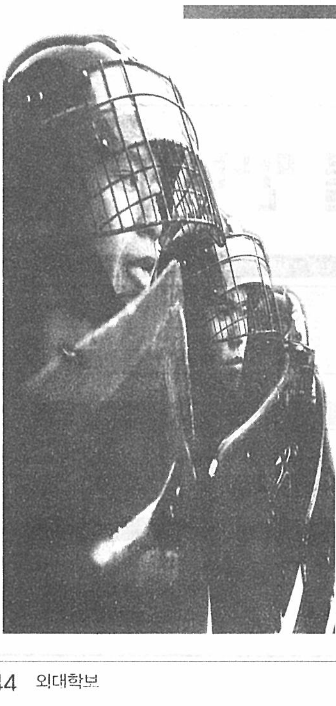
이번주 민족민주열사 추모기간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열사범추위)'에서는 '제3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을 맞아 오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추모 및 기념주간 행사를 마련한다.

14일(월)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펼쳐지는 '열사를 기리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17일(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18일(금)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제'(오후 3시, 조계사), 19일(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오후 3시, 서대문 독립공원)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열사의 거리' 지정을 통한 대중적인 명예회복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열사범추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 "그간 벌여왔던 열사정신 계승과 명예회복,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김준배(97년 한총련 투쟁국장) 열사 1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사건 자료를 보내주세요."

국가보안법,
인권의 힘으로 가두자!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과 함께 국가보안법 제정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치안 유지법을 모체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확대·강화시키며 정권 유지의 도구로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권 대통령'이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8월 28일 현재까지 구속된 양심수 427명 중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무려 61.2%인 2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의 잣대'로 국가보안법이 사상·양심의 자유 등 우리 인권을 어떻게 침해해 왔는지 알려내고,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삭제·개정 운동을 벌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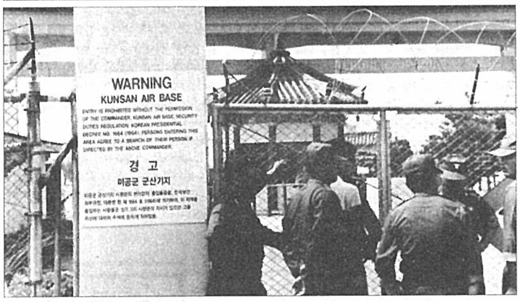
"인권의 힘을 모읍니다"

보낼 자료
개인이나 단체에서 갖고 있는 91년 5월 31일 7차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적용 사건 관련 기록: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사건의 경찰수사발표 내용, 판결문, 공소장, 구속·압수영장과 당시 사건관련 성명서, 대책위 자료집, 연행·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의 내용 등

마감 기간
98년 9월 30일

보낼 곳
우 편: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 4층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0-522)
인터넷: http://www.interpia.net/~rights,
E-mail: rights@interpia.net
통 신: rights(천리안·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tsrights(참세상)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김수경, 김정회)



주한미군 살인범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난달 29일(토) 군산 아메리카타운에서 고령의 박순녀씨가 미군 병장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미군측이 수사권을 독점해 더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금) 박순녀씨 살인사건의 조속한 수사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군산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허가된 집회마저도 저지해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다.

주한미군 살인범죄 또 발생

군산 박순녀 할머니 살해, 미군 용의자 부인

지난 8월 29일(토) 군산 아메리카타운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박순녀(여 66세, 환전소 주인)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는 흉기(칼)로 20여 군데가 난자 당해 자신이 경영하던 환전소 방안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도주중이던 미군 할버슨 에릭(21세, 제8비행단 제3지원중대 병장)을 박순녀씨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체 발견 시각 범행 장소에서 도주 중이었던 점 △왼쪽 상박부와 오른쪽 하복부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 점 △오른손 중지 마디가 찢어져 있는 점 △상의 티셔츠가 찢어져 있는 점 등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이에 할버슨 에릭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더 이상 수사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의자의 신병이 미군측으로 인도되어 경찰측에서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았던 군산 미성파출소측은 "유력한 증거물인 흉기(칼)를 찾아내는 수사를 진행중이며 광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용의자 손톱의 혈흔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단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 심문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라 살인동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섭(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씨는 "박순녀씨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 현금 1억여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용의자의 살인동기를 추측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미군측으로 신병이 인도되어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한미행정협정 제 22조의 형사관할권의 문제'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담당 수사관 중 한명은 "한미행정협정상 미군 범죄자를 현장에서 체포해도 미군측이 요청하면 우리는 용의자를 넘겨줄 수 밖에 없다. 수사권이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더 이상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의자 할버슨 에릭은 처음 우리측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을 당시 살인을 시인하였으나 미군 측에 인도되자마자 일체의 살인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측에 인도된 후 72시간 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수감되었던 할버슨 에릭은 지난 9월4일(금) 평택 미군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군산 미군 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등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 수사당국의 조사에 미군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 제8비행단 부대장의 사과와 퇴진 등을 요구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조지폐 사건, 이영선 목사 교통사고 사건, 최태섭씨 교통 사망사고, 마을로 날아든 오발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발생 및 피해사례가 속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부

한미행협 = 주한미군의 특별 면죄부

한미간 불평등의 상징인 '한미주둔군지원협정(한미행협)'이 지난 95년 11월 제1차 협상을 필두로 한미양국이 96년 1월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한지 2년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협상과정과 그 협정의 개정 윤곽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도 한미행협 개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좀 달라질 줄 알았던 우리 국민은 새 정부의 지나친 대미의존외교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미군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숱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한국수사당국은 미군 피의자의 초동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9일(토) 군산에서 미군병사가 달러상 할머니를 면도칼로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신병을 미군당국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원만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한미행협 제22조 5항에 의하면 '미군 신병이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최종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군당국이 계속 이 구금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피의자가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조차도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미군 신병을 인도해주게 되어 있다. 또 미군피의자 심문시 미군관리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심문조서만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는 규정도 수사진행을 더디게 하고 나아가 우리 사법당국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미일협정은 미군피의자를 기소한 후에는 일본이 신병인도를 확보할 수 있고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전에도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군기지와 시설 안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현행 한미행협 때문에 환경당국이 제대로 조사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독일 보충협정은 이 환경조사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한미행협 개정은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군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미군시설기지의 부당한 점유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쾌적한 삶을 확보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1991년 2월 1일 개정된 한미행협 개정 양해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불평등의 상징인 부속문서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 1991년 개정 행협은 여전히 많은 불평등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미군피의자에 지나친 권리 부여 문제(제22조), 민사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한국인 피해 구제의 문제(제23조), 미군부대 근무 한국 노무자 처우가 한국 노동법상의 수준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 문제(제17조), 통관·관세 및 조세상의 지나친 특혜 부여로 한국시장질서의 교란 문제, 협정 해석시 영어본 우선 문제, 미군시설과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정통성 면에서 약점이 없는 새 정부는 우선 1996년 1월말까지 약속한 한미행협의 개정이 지연된 그간의 연유를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하며, 미국측에도 중단된 개정 협상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성격을 임대지로 전환하는 등 행정협정 전반에 걸쳐 불평등조항을 개정하는 전면개정을 미군측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
〈법학과 교수〉

미 군범죄 반대운동 펼치는 김종섭씨를 만나

"범죄집단이 평화를 수호한다구?"

지난 8월 29일(토)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박순녀씨 살인사건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 박순녀씨 살인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군산지역'의 사무국장 김종섭 씨를 만나 미군범죄의 심각성, 주한미군 주둔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는 어떠한가

미군 범죄는 연 평균 2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 구타, 교통사고, 살인까지 유형도 다양하고 잔인하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존속에 있는데, 이 법안에 의해 형사 관할권은 모두 미국측에 주어져 있으며(합의의사록 22조 2항), 주한 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합의의사록 제9항)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협정22조7항).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폐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미군 공여지 문제, 현대판 정신대라 불리는 기지촌 여성의 문제, 소음과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 문제 등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번 박순녀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군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않고 있고, 용의자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미군범죄도 한미행정협정을 구실로 내세운 미군측에 의해 손해배상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미군범죄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군은 한국을 지켜주는 존재이며 따라서 조금의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평화의 수호자도 아니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그들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온다. 그들은 동아시아를 잠식하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활용, 한국을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기지가 주둔하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될 것이고 우리의 자주권은 철저히 유린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주한미군 범죄나 공여지 문제, 환경문제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미군 주둔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투쟁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주권의 문제이고 문제는 미국도 남한 정부도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운동도 결국은 주한미군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1998년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결을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나누며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함께 걸어 가면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고
우리 또한 사랑했던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을 잡을 수 없음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 대신 열사들을 죽인 자들이
우리와 한 땅을 밟고
한 하늘을 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목숨까지 바친
아름다운 이들.
그 큰 정신과 염원을 가슴에 되새기며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임을 다짐 합니다.

제 3차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9월 14일(월)~ 9월 19일(토)

서울

제3차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선포식
때 : 9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 호칭 구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때 : 9월 14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
때 : 9월 17일(목)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재
때 : 9월 18일(금)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법당

제9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때 : 9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대문 독립공원

열사의 거리

조성만 거리 문화제
때 : 9월 14일(월) 오후 7시 장소 : 조성만 거리 (명동성당 앞)

전태일 거리에서 여는 고용보험 전면적용 대회
때 : 9월 16일(수)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거리 (동대문운동장 앞)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때 : 9월 14일 - 18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내

열사의 거리전
때 : 9월 14일 - 18일 장소 : 명지대학교 교문 앞

광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때 : 9월 17일(목) 7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타

부산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때 : 9월 14일 -18일 오후12시-6시 장소: 부산역광장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때 : 9월 14일(월) 오전 8시 장소 : 부산역광장 그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양심수 전원석방의 날 때 : 9월 15일(화)
국가보안법철폐의 날 때 : 9월 16일(수)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의 날 때 : 9월 18일(금)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때 : 9월 18일(금)
장소:부산대 Mr.Bud

주최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02-921-4092) 후원 : 한겨레, 월간 말,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재단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③ 학생대상 설문조사 분석

지속적 관심이 외대발전의 초석

설문조사 결과, 학교운영 학원3주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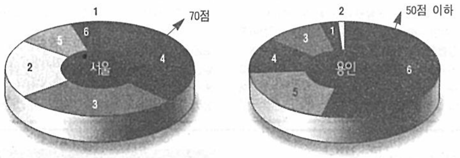
재단투쟁을 마무리하는 시기다.

양배움터 총학생회는 구조조정안,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안, 외대발전 장기계획안 등을 논의하며 재단투쟁을 정리하고 있다. 배움터 분위기 또한 이제 재단문제는 접고 개강을 맞이하여 다시 수업에 열중하는 교수, 학생들의 분주한 모습은 학원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재단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올바른 재단투쟁 정리, 이후 적절한 외대발전 방안을 위해 양배움터 학생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보는 이 결과 분석을 통해 양배움터 학생들의 재단투쟁에 대한 의식과 전망을 정리하고 더 나은 외대발전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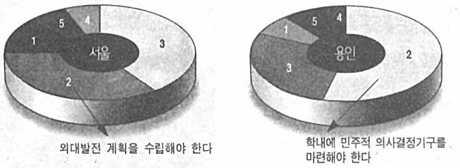
1. 지난 학기 우리 배움터 총학생회 재단투쟁에 점수를 준다면? (서울, 용인)

① 100점(1명, 3명) ② 90점(20명, 1명) ③ 80점(28명, 10명)
④ 70점(37명, 12명) ⑤ 60점(10명, 20명) ⑥ 50점 이하(4명, 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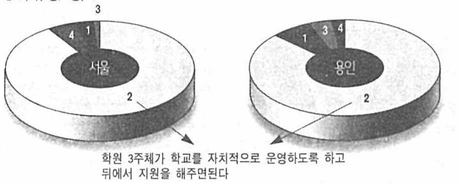
3. 우리배움터 총학생회가 재단투쟁 문제중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용인)

① 학내에 남아 있는 박승준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12명, 7명)
② 학내에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건설해야 한다.(40명, 54명)
③ 외대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5명, 28명)
④ 재단문제는 끝났으므로 학생들 취업문제에 신경써야 한다.(7명, 4명)
⑤ 기타(6명, 7명)



5. 관선이사는 어떠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용인)

① 대학 내 모든 일에 관선이사가 참여하여 진두지휘해야 한다.(3명, 7명)
② 학원 3주체가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 된다.(91명, 87명)
③ 관선이사는 학교일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1명, 4명)
④ 기타(5명, 2명)



최근 대학운영위 건설, 조규철 총장과의 면담자리를 고민중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학기 재단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오류점인 '학우대중'과 함께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학생회장, 각 단대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이 각 과총회 자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 오해를 풀기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위에서 말한 총학생회의 오류점을 그대로 지적했다. '지난학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재단투쟁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물음에 설문에 응답한 학생 100명 중 54명은 가장 낮은 항목인 '50점 이하'를 선택했다.

이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에서 지난 학기 재단투쟁 평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총학생회의 투쟁방향이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미탈퇴(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가담 혐의) 수배로 그동안 학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장 고희철(인문·언어 4)군은 "학우들이 평가한 대로 지난 학기 왕산 총학생회의 재단투쟁이 대중적이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학기 학생회 상황이 김대중 정권의 공안탄압 등으로 집행간부가 거의 없는 등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며 "지난 학기 투쟁의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학우들을 만날 것이며 진정 학우대중이 지지하는 총학생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지난 학기 재단투쟁에 대한 평가는 용인배움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인 평균 75점을 얻었다.

지난학기 총파업이라는 가장 적극적 투쟁방식으로 재단비리투쟁을 벌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한 작업들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졌던 점이 일단 학생들에게 상당한 공감대를 조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단의 전횡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용인배움터는 '학원 3주체(교수, 학생, 직원)가 대학운영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68명,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도 투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 두 번째인 37명, '사립학교법'이라는 답변을 27명이 선택했다. 서울배움터도 '학원3주체가 대학운영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총파업이라는 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대거 참가하는 투쟁을 벌인 영향이 큰 탓인지 용인과 달리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도 투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사립학교법'이 재단 전횡의 근본임을 확실히 했다.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학원3주체가 대학운영에 참가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기구를 건설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특히 '우리배움터 총학생회가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물음 3번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양배움터 모두 설문에 응한 학생 중 50%가 '학내에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건설해야한다'고 답변해 대학운영을 하는 주체가 재단이사회나 총장이 아닌 학원3주체가 돼야한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학교운영이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된 갖가지 비리에 대해 학우들의 대학운영 참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물음3에 대해 '외대발전계획 수립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배움터의 경우 공간확보 문제, 용인배움터의 교수시설 부족 등 발전계획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 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용인배움터의 경우 기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인 '교통문제'에 대해 완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관선이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양배움터 모두 50%이상의 학생들이 '그들의 행동을 계속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어떤 사람이 학내에 들어와도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함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듯하다. 그외의 답변으로 기타에서는 '부패한 교육부에서 선임한 관선이사가 과연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관선이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양배움터 모두 30명씩 답변해, 관선이사들의 이력을 알리는 점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관선이사가 갖추어야할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상의 모든 결정이 재단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 학원3주체가 대학을 운영하면 뒤에서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 부여만을 원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인 비율인 약 90%에 가까워 그동안 전횡의 근본인 재단이사회의 권력 축소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말해준다.

'박승준 전재단전무이사가 다시 학내에 진입하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정, 비리로 인해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은 다시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박승준이 들어와도 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학원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외대발전 장기계획에 대해 서울배움터는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자곡동 이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용인배움터는 '교통문제 해결과 자연대·공대 특화발전'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폴란드어과 학생회장 박제용(3)군은 "우리 과의 경우 외대발전계획에 꼭 추가 됐으면하는 것은 바로 서양학대에서 동구어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분리되는 것이다"며 "2학기 정기학생총회 등의 공간을 이용해 학생들의 힘을 모아 이런 외대발전계획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단비리 척결투쟁으로 시작된 지난학기 재단투쟁.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대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구악일소,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 건설, 외대발전 장기계획 수립' 우리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재단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학원3주체가 해야할 일이다.

92년도 외대발전 투쟁을 통해 얻어낸 지난해 여름까지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에 걸려있던 동판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할 것이다.

**'합의서 이행 투쟁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약속을 재단과 학교측이
이행하는지 똑똑히 감시해야 한다'**

동판에 써져 있던 내용 중 일부이다.

대학당국과 재단이사진의 이후 활동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변한다면 제2의 재단비리사태가 없을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학원 3주체가 하나되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결코 우리는 쉬지 말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명재권 기자

알림

'재단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번 720호로 마칩니다.

다음 721호부터 '교육침략시대' 기획이 6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외대학보—

교육부 컨센서스

ㅇ…「대학가 신(新)유행어: 대학구조조정. 퍼뜨린이: 교육부. 어떻게 유행시켰나? 구조조정하면 지원해주고 안하면 안해주는 당근과 채찍작전. 목적: 대학에 시장경제논리를 개입하여 돈되는(생산력있는)학문만 살리기 위해」이는 크로니클자가 인수한 '교육부컨센서스' 내용이다. 이를 본 크로니클자 한마디 "우리학교도 구조조정하면 돈안되는 학생복지사안만 엄청 깎이겠군"

〈민〉

ㅇ…재단투쟁 마무리 과정.

외대를 파탄의 늪으로 몰고 갔던 박승준 세력, 이제서야 숙연하게 반성하며 '외국심(외국어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코웃음이 나오는 이유인즉 2년후 박승준 세력 발판 만들려고?

뜬소문에도 귀기울이는 외대인, 구악일소, 비리척결로 '너만은 잡겠다'는 입장.

다만 공정한 잣대로 검증해야… 그래야 뒷탈없지.

〈우〉

크로니클

ㅇ…98년 세계민속공연이 열리는 날. 크로니클자 행사가 열리는 KBS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 헤매는데…. 1시간 넘게 여의도 곳곳을 이잡듯이 뒤진 끝에 발견한 KBS홀에 들어간 순간 크로니클자 곧 침울해진다. 학생행사 조차 소화할 시설이 없는 우리학교의 현실때문이라.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진짜루 안해주는 대학 바로 외대랍니다.

〈석〉

ㅇ…군산미군기지에서 박순녀 할머니가 미군 병장에게 살해된 채 발견. 이에 격분한 크로니클자미군기지 부대장을 다짜고짜 찾아갔는데. "왜 살인범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거요 / 우리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자국민 인권 보호가 타국민 인권 침해로만 가능한거요 /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왔으니 그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지요" 이에 미군기지를 나오며 크로니클자 한마디 "우리나라 평화는 범죄자들에 의해 지켜지는군"

〈겸〉

살인자와 평화

비둘기칠판

이 문 벌

□ 알립니다

· 온누리 수족침 기본강좌 합니다.
때: 14일(월)~17일(목) 늦은 6시
곳: 1402-1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누리 수족침〉

· 13회 총동문회장단 쟁탈전 교내 남,여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때: 14일(월)~18일(금) 5일간
곳: 대운동장
주최: 배구반
후원: 총동문회,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 영어교육과 원어연극회 '우리가치'의 제 5회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작은 '로미오와 줄리엣' 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곳: 대학원 소강당
때: 24일(목)~25일(금) 늦은 6시 30분
26일(토) 늦은 4시
〈우리가치〉

· 서초고 총동창회가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이 열립니다.
때: 19일(토) 늦은 5시
곳: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홀
회비: 1기~8기 3만원
9기~12기 2만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슴없이 연락주세요.
6기 이상훈 : 015-7707-5845
〈12대 재외대 서초고등학교 동문회〉

왕 산 골

□ 알립니다

· 이제부터 아프리카를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http :// rafiki. home. nl. org
넷프리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아프리카어과〉

· 16일(수) 동대 율동패 '얼씨구 절씨구'에서는 제 1기 패장을 뽑습니다.
패장1, 부패장1, 기획, 선전, 창작팀으로 구성됩니다.
임기: 98. 2학기 ~99.1학기
98년을 깔끔하게 마감지으면서 99년을 새롭게 열 새 주인공이 되십시오.
〈동대 율동패 얼씨구 절씨구〉

· 마인어과 수학여행갑니다.
자격: 마인어과를 사랑하는 모든 남녀(학년불문)
최종목적지: 설악산
여행행로: 청량리→춘천→양구→속초
일 자: 25일(금) ~ 27일(일)
예비모임: 15일(화) 늦은 5시 30분. 과사무실 〈마인어과〉

· 홀로히, 외로운 우리 땅 독도!!
독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독도문제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의: 학생회관 323호 (4410)
〈독도 문제 연구소〉

□ 모집합니다

· 공대학생회에서 함께 일 할 간부를 모집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만빵의 공대인.
함께 끌어 가자구요. 문의: 4398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대학단신

서울, 추석 귀향차표 발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18일(금)까지 일주일간 도서관 앞에서 추석귀향차표를 발매한다. 또 고향이 제주도인 학생을 위한 비행기표 구입(40매 한정)도 같이 접수한다.

총 28개 노선으로 운영되는 귀향버스는 오는 2일(금) 오전 10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하고 제주도행 비행기는 2일 12시 30분, 3시 20분 두시간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차표는 접수기간 중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요금은 일반버스요금의 70%정도이다. 또 차내에서 도시락과 음료수가 제공된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는 추석선물로 민속주 구입 접수도 같이 받는다.

용인 총학, 수해돕기 활동 실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늘(14일)을 '수해돕기 실천의 날'로 지정, 이번 한 주 동안 수해돕기 활동을 벌인다. 경기도일대 수해민을 돕기 위한 이번 수해활동은 '1000원 모으기 운동'과 '헌옷 모으기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문대는 사탕팔기를, 동연은 이틀찻집을 여는 등 단위학생회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주창석(동구·체코 4)군은 "세민전, 간부인선 등 일정이 겹쳐 홍보가 잘 되지 않았으나 학우들의 수재민에 대한 관심을 행사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지난 3일(금)에서 4일(토)까지 충남 당진에서 벌인 수해복구 활동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용인 태국어과, 15주년 기념행사 열려

용인배움터 태국어과는 15주년을 맞아 오는 20일(일) 오후 2시부터 후복관 4층 소극장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교수, 동문선배, 재학생 간의 친목도모 및 화합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원어노래반 공연 △15주년 준비활동 비디오 상영 △민예반 민속공연 △원어연극 공연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장 전종학군은 "재학생들에게는 소속감을, 졸업생에게는 학창시절의 향수를 심어줌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하나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총여, '나눔의 집' 방문 예정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무궁화를'이라는 표어로 총여학생회는 오는 20일(일) 위안부할머니들의 거주지인 '나눔의 집'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달 14일 나눔의 집 부근에 세워진 '일본군 성노예관' 주변에 무궁화를 심는 작업을 한다. 또한 학생들은 나눔의 집 측에서 마련한 무궁화 나무를 그루당 5000원에 구입, 수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 중인 총여학생회장 배김선혜(서학·영어 3)양은 "일본군 성노예관이 완공된 지금도 정신대할머니 문제는 여전히 관심밖의 일로만 여겨진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할머니들께 위로와 힘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문기 쟁탈 핸드볼대회 열려

오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29회 동문기 쟁탈배 핸드볼대회'가 소운동장에서 열린다.

이에 핸드볼부는 16일(수) 사회과학관 403호에서 추첨을 하고 대진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핸드볼부 주장 김용술(동양·중국 3)군은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외대에서 가장 오래된 행사"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각 3위까지 우승기와 트로피를, 최우수 선수와 우수선수 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주어지며 재학생 2명에게 동문 장학금을 수여한다.

사회대 문화제

서울배움터 사회과학대(사회대) 개강맞이 문화제가 지난 8일(화) 사회대 건물앞에서 열렸다. 상반기 생활을 평가하고 하반기를 대중적으로 힘차게 결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자리에서 '새날', '노래터'의 노래공연과 '푸른웃음 담긴 우리의 신명으로'라는 노래와 율동을 참가자 전체가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외대영상사업단에서 상영한 8월 범민족대회 비디오는 범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날 사회대 학생회장 이현수(신방 4)군은 "단대단위에서 대중적으로 개강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하반기 민중생존권투쟁과 학부제 반대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겠다"고 결의했다.

임승희 기자

법대 30주년 행사 16일 시작

정총, 모의재판, 동문의 날 등 여러 행사 마련

서울배움터 법과대 학생회는 법대 30주년을 맞아 오는 16일(수)부터 26일(토)까지 열흘간을 외법인 주간으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수·학생·동문이 함께하는 법대의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기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첫날 30주년 선포식과 법대정기학생총회(정총)를 시작으로 막을 연다.

17일(목)부터는 법대 산하의 각 학회 심포지움과 모의재판, 전시회 등과 법학연구소 주관의 세미나, 모교방문의 날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문의 날 행사는 △자랑스런 외법인 상 및 동문상 시상 △법대발전 마스터플랜 시상 △동문체육대회 등의 순서로 이어지며 체육대회에 대비, 17일(목)부터 학번별로 예선전을 치른다.

또 24일(목)까지 전 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대발전 마스터플랜도 공모한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를 준비한 준비위원장인 법대학생회 부학생회장 이동원(3)군은 "30년의 역사에 걸맞는 법대다운 법대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30주년 기념행사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용인, 농민대회 참가 결의대회 개최

농민들의 아픔 느끼는 대회로 이어갈 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는 15일(화) 12시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농가부채 해결과 98 전국농민재회 참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연설△율동패 율동 및 노래 △여주농민 '농촌의 현실' 연설 △전국농민대회 참가 결의 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연설은 수해활동에서 느낀 농촌의 현실이나 농민대회 참가의 의의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번 농민대회 참가 결의대회와 관련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주창석(동구·체코 4)군은 "그간 느꼈던 농민들의 아픔과 분노를 농민대회로 이어갈 것이다"며 "농촌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우들의 힘이 절실하다"고 참가를 당부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오후 2시까지 행사장소인 보라매 공원으로 버스로 이동하고 농민대회 행사가 끝난 뒤에는 여의도까지 평화행진을 할 예정이다.

교직원 징계위 이번 주 열려

비리혐의 교직원 처리에 관심 집중돼

오늘, 내일(15일) 양일에 걸쳐 비리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학기 재단투쟁과 관련 구재단세력과 유착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교직원을 주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징계위에서 비리혐의 교직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3시에 열리는 교원징계위는 지난 학기 교육부가 내렸던 징계를 이행하는 선에서 우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화) 10시 본관 108호에서 열릴 직원징계위에서는 근무지이탈과 외대정상화협의회 활동을 한 직원 42명을 회부, 본인의 진술을 듣는다. 외대정상화협의회 문건에 이름이 올라간 직원 중 15명은 단순가담으로 판단,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

직원징계위 위원은 대학당국측 5명과 직원노조측 4명으로 구성돼있다. 징계위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모의유엔 총회 18일

서울배움터 모의국제연합위원회(모의유엔)는 오는 18일(금) 오후3시 국제관 2층 애경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해양질서 확립'이라는 의제로 '제22차 모의유엔총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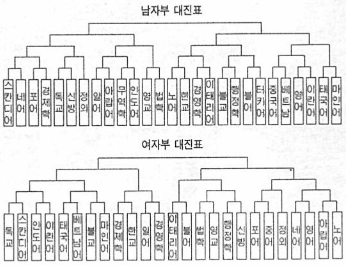
심사는 국제법과 해양분야 관련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대표위원들의 정책보고서, 기조발언문, 토론내용 그리고 발언태도를 심사기준으로 삼고 평가한다.

이번 모의유엔총회는 외국어 학술행사이며 범대학적 행사라는 의의를 갖는다.

총동문회장기 남녀배구대회 오늘 개막

서울 배움터 '13회 총동문회장기 쟁탈 교내 남녀 배구대회'가 오늘(14일)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배구부가 주최하고 총동문회와 총학생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남자 경기에 27개 과와 여자 경기 25개 과가 참가한다. 이 행사에 대해 배구부주장 김지윤(법·법학 3)군은 "배구를 통해 각 과의 단결과 화합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남녀 각3위까지와 최우수선수1명씩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할 계획이며 마지막날에는 총동문회장과 지도교수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제13회 총동문회장기 쟁탈 교내 남녀 배구대회



종운위 결의한 언협의장을 만나

이 사람

"언협의 주인은 외대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뉴스를 보며 잠이 든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성언론의 영향력 속에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권력과 자본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반해 비판적,진보적 특성을 지닌 대학언론의 긍정적 역할을 고취시키기 위한 언론협의회(언협)가 학생회 회칙상 학생자치기구로 인준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협 의장 허윤숙(동양·아랍어 4)양은 "언협은 학내 언론사 기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언론일꾼은 취미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타 동아리성원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학내 공기(公器)를 만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기에 언론일꾼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허 양은 덧붙였다.

"학내 언론사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고 외대 1만4천 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함에도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생자치기구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후 학생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허 양은 밝혔다.

우리학교 용인배움터와 세종대, 서강대 등 많은 학교에서 언협은 이미 그 역할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중앙운영위원회로서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허 양은 "외대학보, 디 아거스(The Argus), 교지, FBS는 외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지대금으로 운영된다. 언협의 주인은 바로 외대인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언협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애정과 비판을 당부했다.

남현주 기자

교직원 및 재학생 정기 신체검사 실시

1. **검사일시** : 1998. 9. 23(수) ~ 24(목) 10:00 ~ 16:30
2. **검진신청일** : 1998. 9. 16(수) ~ 18(금)
3. **장소** : 용인캠퍼스 보건실(구내4036)
4. **검사 항목 및 검사료**
   가. 흉부 X선 검진 : 무료(학교부담)
   나. 교직원신체검사(의료보험 주관) : 전액 조합 부담 /검진의뢰서 및 문진표 지참(의료보험발행)
   다. B형간염검사 : 1,500원(본인부담)
   라. 심전도검사 : 4,500원(본인부담)
   마. 초음파 및 위장조영촬영검사(본인부담 : 의료보험 수가기준)
   바.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시 신체검사 : 15,000원(본인부담)
   (검사 안내문 참조 - 보건실 및 각 학과 게시판 공고 게재)

※ 검진시 유의 사항 : 검진전 6시간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간염검사는 제외)

5. **검진기관** : 한국의학연구소
6. **검사결과 통보일** : '98. 10. 15(목) ~ 16(금) 개인별 진료상담

용인캠퍼스 보건실

학교홍보 슬로건(캐치플레이즈) 모집

1. **슬로건(slogan),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 내용**
   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미래의 발전상 등을 함축하는 내용
   나)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하고, 학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다) 법인과 학교 개혁을 통해 깨끗하고 거듭나는 앞선 사학의 모습
   라) 외대에 대한 강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주는 내용
2. **분량** : 5자부터 ~ 20자내외
3. **대상** : 본교 재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4. **기간** : 1998년 9월 14일(월) ~ 9월 23일(수)
5. **발표** : 9월 28일(월) 「외대학보」 및 개별 통보
6. **접수처** : 본관 2층 홍보실
7. **연락처** : 구내 4053, FAX 969-1319
8. **접수양식** : A4양식에 슬로건과 개인 인적사항(소속 및 연락처)을 기재
9. **시상** : 최우수작 1명(15만원), 우수작 5명(5만원)
10. **심사 및 활용** : 심사결정후 각종 홍보물 · 광고에 활용될 예정임.
11. **기존 슬로건** : 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최우수 국책대학
    나. 세계를 호흡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교 심볼 · 로고 · 마스코트 등에 관심있는 분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아르바이트 지원서 접수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 경험 및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학기중 수시접수
2.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학생처
3. **대상** : 전학년
4.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 우선권이 부여됨.**

1998. 9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취업상담을 위한 취업진로카드 작성 및 제출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졸업예정(졸업)자의 취업진로카드를 다음과 같이 교부 및 접수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98학년도 전기('99년 2월) 졸업 예정자
   * 기졸업자 중 미취업자도 제출가능함.
2. **취업진로카드 교부 및 접수처** : 학생취업정보센터
   - 서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구내전화 4436)
   - 용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구내전화 4040)
3. **준비물** : 증명사진(3cm×4cm) 1매.

1998. 9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교양 특강 공고

교양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많은 청강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98년 9월 15일 (화) 11시
2. **장소** : 시청각교육원 210호
3. **연사** : 조관연 박사(본교 교양부 강사)
4. **연제** : "외대와 다큐멘터리"

1998. 9

교양과정위원회

민방위 일반교육 실시

민방위 일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민방위대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98. 9. 18 (금) 14:00 ~ 18:00
2. **장소** : 시청각교육원 영상실 210호 (서울캠퍼스)
3. **대상** : 서울캠퍼스에 편성된 5년차 민방위 대원
   단, 화생방 대원 제외
4. **복장** : 민방위복 또는 간소복
5. **지참물** :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998. 9.

서울캠퍼스 직장민방위대장

문 화비평 -해피투게더와 검열

자본과 검열의 '해피투게더'

인간이 지닌 가족애, 동성애로 표현

작년 이맘때로 기억된다. 영상단과 중국어과 학생회 그리고 상경대 영화모임 AV를 비롯해 학내의 여러 영화 영상단체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는 영화를 너나할 것 없이 상영했고, 상영 장소는 어디나 호황을 이루었다. 대략 2000여명의 외대생은 이 영화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이 우리들은 시설도 좋지 않고, 화질도 좋지 않은 소극장의 액정 화면속으로 불러 모았을까?

부에노스 아이레스 - Happy Together - 춘광사설(春光乍洩) 이라는 세가지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영화는 우선 카메라맨 도일의 색채와 왕가위의 그 속도감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유혹했다. 칸느라는 아주 익숙한 영화제의 그랑프리라는 매력 또한 젊은이들을 자극했다. 무엇보다 우리들을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보아서는 안된다는 법적규제, 한국의 검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보면 안되는 왕가위 영화를 대학생만 볼 수 있다는 매력은 많은 이들을 자극했고 결국 입에서 입으로 흘러 홍콩의 불법 CD에 한글자막을 입혀 액정으로 보는 비디오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심의의 과정에서 농담같은 몇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심의관1 :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 이거 동성애 영화네. 이게 왕가위 영화 맞아?

심의관2 : 이게 칸느 그랑프리 탄 그 영화 아니에요?

심의관1 : 그건 부에노스 아이레스이고 이건 딴 영화인거 같은데...

심의관2 : 그럼 안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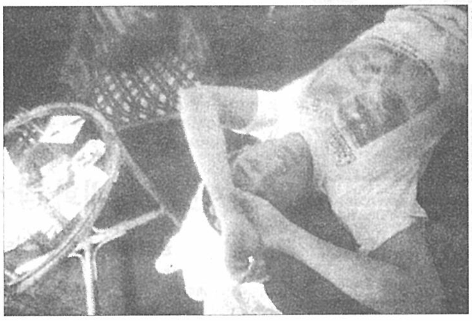
이렇게 심의에서 등급외로 판정되었다는 사오정이야기 같은 후문이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대체 어떤 영화일까? 멋진 대사와 레드와 블루의 조화를 이루는 두 젊은 동성애자의 이야기이다. 물론 극장에서는 동성애 장면을 상상만 해야 한다. 두 젊은이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서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삶에 대한 회상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이다. 이 영화는 탱고의 선율을 타고 아휘(양조위)를 중심으로 이야기 된다. 아마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사랑일 것이다. 그러나 주제는 동성애도, 이성간의 사랑도 아닌 인간이 가지는 회귀의 본능 가족애일 것이다. 그러나 검열의 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화의 주제와 모티브 보다는 인물의 설정이 그 잣대를 차지 했다.

왕가위의 홍콩과 장(아휘의 친구)의 대만, 등소평의 중국은 아휘가 돌아가는 홍콩 속의 중국, 중국 속의 홍콩으로 언젠가 만나야 할 사람들로 영화는 끝을 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겨진 보영을 뒤로 두고...

1998년 가을 뒤늦게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극장으로 돌아 왔다. 물론 비평가들은 왕조위의 영화에 아낌없는 별표를 던져주었고, 영화의 시장에서는 검열로 묶여 있었던 1년여의 시간또한 광고의 카피 문고 속에 포장되어 더 많은 관객을 더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영화는 재미가 없다.(재미로 보기엔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해피투게더가 왜 1년여의 기간을 끌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관객들은 극장을 찾았고, 제각각의 생각으로 해피한 결말을 내리면 또 한편의 왕가위 영화를 자신의 영화노트에 채워 놓았다. 물론 지금은 영화속에서 장국영과 양조위의 정사장면을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둘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이구아수 폭포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목격할 뿐이다. 그들은 장국영의 방황을 알지 못한채 보영과 아휘의 이별을 보아야 한다. 결국 세상끝의 등대에서 묻을 아휘의 아픔을 관객들은 모른채 우리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느껴야 한다.


영화의 주제는 동성애로, 이성간의 사랑은 아닌 인간이 가지는 회귀의 본능 가족애일 것이다.

> 물론 비평가들은
> 왕조위의 영화에
> 아낌없는 별표를 던져주었고,
> 영화의 시장에서는
> 검열로 묶여 있었던
> 1년여의 시간 또한
> 광고의 카피 문고 속에
> 포장되어 더많은 관객을
> 더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의 검열은 마치 흐르는 노래의 한소절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리던 그림의 어느 한부분을 색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열의 상처를 입은 영화가 완전히 상영이 될 수 있을때까지 어떠한 수입사도 자진해서 영화를 삭제해선 안된다. 더욱이 검열로 입은 상처를 포장해서도 안된다. 영화의 가위가 부러질 때까지..

영화를 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성회
〈외대영상사업단, 사회 · 신방 2〉

98 국제순결대행진을 다녀와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가족붕괴, 이혼급증… 퇴폐적 성문화 만연

One Love One Life One Man One Wife !

지난 여름 부산, 대전, 서울에서는 아주 색다른 어떻게 보면 웃긴 그러나 중요한 "'98 국제 순결 대행진"이 5일간 개최되었다. 대회 전 기간을 함께했던 나는 외대인의 대표로서 참석했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통해 대회의 의의와 내용 등을 알리고자 한다.

8월12일부터 16일까지 'PLA(Pure Love Alliance, 순결한 사랑연맹)'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와 '참가정실천운동본부'가 후원했다.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학생 200여명 그리고 한국학생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3일에는 부산역 광장, 14일에는 대전 문화의 거리, 그리고 15일에는 대학로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개최되었다.

대회 내용은 주로 준비되었던 공연(노래와 춤, 5분 Speech, Free-sex man 화형식 등)으로 순결운동의 열기를 북돋웠고, 공연후에는 가두행진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순결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LA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PLA는 성의 문란으로 발생되는 윤리 · 도덕적 문제들의 해결을 목적으로 1995년 미국에서 출범. 지난해 "PURE LOVE 97"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6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 미국내 24개주를 돌며 순결가두행진을 실시하여 미국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었다.

올해 들어서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적 조직을 구축,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먼저 일본에서는 6월에 J-PLA가 창립되어 8월2일부터 11일까지 일본전역을 돌면서 순결한 성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가두행진을 실시했고, 그 여세를 몰아 한국에서 "'98 국제 순결대행진 한국대회"가 'ONE LOVE ONE LIFE'란 주제로 부산, 대전, 서울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체제가 잉태시켜 놓은 사회전반의 모순과 갈등이 IMF 체제를 계기로 일시에 폭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 사회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가족의 붕괴와 이혼의 급증, 청소년 성문제와 학교 폭력, 10대 윤락 청소년의 등장, 청소년 유해환경과 퇴폐적 성문화의 만연 등 정신적 가치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붕괴의 주된 희생자가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PLA 한국대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또한 이 대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양심에 기초한 새로운 성 가치관과 순결의식을 고취하여 퇴폐적 성문화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성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건전한 사회적 성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변혁운동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세계 속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그 나라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직원과 성관계를 시인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일본도 일본후생성의 통계조사결과 지난 해 이혼건수가 22만2천6백50쌍이라고 한다(이는 2분 22초만에 1쌍씩 이혼을 하는 셈). 우리에게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대인의 성과 사랑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사랑의 상대 따로, 섹스의 상대 따로, 결혼의 상대 따로라는 '따로의식'이라는 것이다. 결혼을 하기 전후(前後)에 사랑의 상대와 섹스의 상대를 찾아 헤매는 모습. 또, 결혼의 상대는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오늘날의 결혼풍속. 그 속에서 바람직한 가정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의 대상이 하나로 영원히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존재와 영원한 사랑의 이상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참사랑과 참가정을 이루어 행복의 파랑새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역광장에서 모여든 시민들에게 소리쳤던 한 미국 PLA회원의 연설이 생각난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퇴폐적 성문화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않기를 바랍니다."

이중출
〈법 · 법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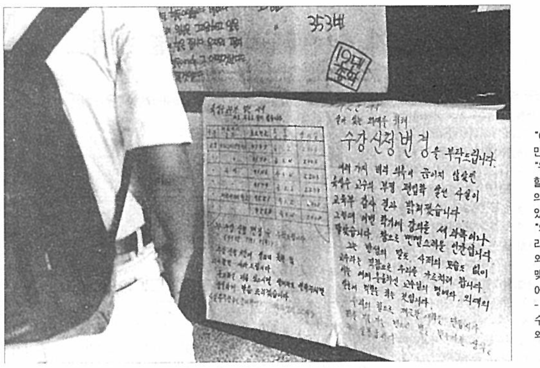


사진 수필

"여물지 않은 생각일지 모르지만…"으로 시작한 고요한 외침.

"우리는 분명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그에 앞서 강의다운 강의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어지다.

"외대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진정한 외대의 발전은 없습니다"라고 끝맺는다.

어느 98학번 새내기의 말이다.

- 용인배움터 육성수교수 강의의 수강신청 변경을 부탁하는 대자보와 관련해서

임승희 기자